20일 Market Index
코스피 4869.96 (-267.93)
코스닥 645.68 (-39.13)
금리(국고채 3년) 3.642 (-0.074)
환율(원-달러) 1336.2 (+6.2)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하나금융그룹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우세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부채 변수

금통위,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
지난달 은행 주담대 순증액 3.3조
미승인 집단대출 실행 늘어난 영향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가계부채 부담도 금리 판단의 변수로 남아 있다. 10월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이미 승인된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실행이 늘면서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폭은 다시 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2일 7·8월 두 차례 인상의 파급 효과와 대외 불확실성을 더 살피겠다며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8월 연 4.66%에서 9월 4.88%로 올랐다.

은행권 주담대 순증액도 9월 2조9000억원에서 10월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 자체 일반 주담대 순증액은 1조6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집단대출 순증액은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국토교통부의 신고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6월 약 3만건에서 9월 약 1만8000건으로 줄었다. 거래가 줄어도 분양 중도금과 정비사업 이주비는 공사와 이주 일정에 맞춰 나간다. 금융당국은 10월 주담대 증가폭이 커진 배경으로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의 실행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철도노조, 오늘부터 쟁의행위 예고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뉴시스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26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전국 입주아파트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아파트. '그랜드 힐 가든' 수경시설과 조형물. /성채리 기자

◆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 시 상 식 : 12월17일

美 AI 쇼크… '블랙먼데이' 몰고 오나

미국·유럽·일본 등 글로벌 긴축
빚투 개미들, 반대매매 위험 커져
'환율하락'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유럽·일본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여파로 23일 열릴 국내 주식시장에 '검은 월요일'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서다. 특히 빚을 내 투자한 '빚투(빚내서 투자)' 개미에게는 단순한 손실 확대를 넘어 '반대매매'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미수거래(매수대금 일부를 나중에 내는 거래) 반대매매 금액은 2343억원에 달한다. 전달 5414억원의 43.28%에 달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반대매매에 따른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주가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4면〉

시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투매하는 '항복 매도'와 반대매매가 쏟아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에서 AI 열풍을 주도하던 AI·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며 공포 심리가 번져 있는 데다, 1336.2원(20일 기준)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이탈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화가 비싸지면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손에 쥔다. 코스피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42.55% 떨어졌지만, 달러로 따지면 낙폭은 33.46%로 떨어진다. 고수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쏠리는 상황도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단기 '빚투' 지표인 위탁매매 미수금도 증가세다. 19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9700억원으로, 지난달 말(8723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 같은기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의 비율은 0.4%에서 1.2%로 뛰었다.

주요 증권 커뮤니티에선 억대 손실을 호소하는 글부터 추가 폭락을 걱정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투자자는 "1억원을 날렸다. 내 돈 내놔 외국인들아"라고 적었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한 개인은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망하는 건 나"라며 자조했다. "노후생활비에 보태려고 샀는데 17% 손실이 났다. 더 사는 것도 무섭다"는 호소도 나왔다.

증시를 떠받치는 대기 매수세도 약화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19일 81조5669억원으로, 전달 말 90조2351억원 보다 8조6681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6월 최고치(139조6948억원)와 비교하면 약 58조원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6조833억원까지 줄었다. 지난달 말 29조644원대에서 15거래일 만에 약 3조원이 줄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커버스토리

임금·복지 격차… 퇴직자 60% 1년 못채워

中企 떠나는 청년들

중기근로자 중 39세 이하 28.9%
대기업 41.8% 보다 12.9%p 낮아
퇴직사유 41.4% '낮은임금 수준'
중기부 "임금격차 완화 등 지원 필요"

전북 익산에 있는 한 기계 관련 중소기업은 오랜만에 30대 직원을 맞았다. 채용 공고를 내고 주변에 수소문도 해보고 인근 대학을 통해 소개도 받는 등 사람을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봤다. 〈관련기사 3면〉

그런데 이 청년은 1년도 안돼 좀더 돈을 많이 주는 주변의 또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또다시 사람을 구하기위해 같은 일을 반복해야한다. 사람 찾아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더욱 빠르게 늙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30~39세 비중은 2015년 23.7%에서 2025년에는 19.9%로 3.8%p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300인 이상)이 33.8→32.3%로 1.5%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39세 이하 청년 비중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눈에 띄게 낮다.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 비중(남성)은 중소기업이 28.9%로 대기업(41.8%)보다 12.9%p 낮다. 여성은 중소기업 30.6%, 대기업 57.7%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豚眼見豚…순방 외교 대통령 주요 업무"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시험지 촬영·전송 차단 추진…식별 표식으로 출처 확인 방안 검토"
▲조국혁신당, '연내 조희대 탄핵안 처리' 與에 "30일까지 소추안 발의 완료해야"
▲조국 "당명 개정 제안…당원·국민 의견 수렴할 것"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지켰다"…YS 서거 11주기 추모식
▲전교조 "최교진, 수능 부정행위 대비 부족…AI 대응할 장관 와야"

주력사업 지휘권 분리… 로봇 등 미래사업에 최고경영진 집중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신임수장 중심 책임경영 강화
반도체 호황기 이후 성장기반 마련
후속 임원인사·조직개편 이목집중


황상준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조상연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이종명 DS부문 CTS 사장


최원준 MX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도 이익 편중과 완제품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번 사장단 인사를 통한 경영체제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력사업의 실적 책임을 신임 수장에게 맡기는 한편 최고경영진은 파운드리·로봇 등 미래사업에 집중해 반도체 호황 이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7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두 사업에는 별도 수장을 배치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삼성전자가 주력사업의 경영 책임을 분리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도 개선되지 못한 완제품 수익성과 메모리에 집중된 이익구조가 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107조4000억원으로,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을 차지한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메모리 판매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실적은 개선됐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사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TV 수요 부진과 생활가전의 원자재·물류비 상승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 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메모리 중심의 이익구조에서 벗어나 향후 업황 둔화에 대비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주요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

◆ 미래먹거리 역량 집중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비메모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메모리사업부장직을 황상준 신임 사장에게 맡기고 파운드리 등 미래사업 강화에 집중한다. 황 사장은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모리사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와 수익성 관리를 책임진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상연 부사장을 시스템LSI사업부장으로, 이종명 부사장을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특히 글로벌 고객 대응 경험이 풍부한 조 사장에게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맡겨 신규 고객 확보에 무게를 뒀다.

비메모리 사업 강화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미국 브로드컴과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위탁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진 교체 이후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고 브로드컴과 구글 등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객 다변화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첨단공정의 양산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는 2027년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AI·고성능컴퓨팅(HPC)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시설투자 84조4000억원 중 76조8000억원을 DS부문에 배정한 만큼 대규모 투자를 비메모리 사업의 이익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전영현 체제의 관건이다.

DX부문에서는 완제품 수익성 회복과 로봇 사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태문 사장은 스마트폰 사업을 최원준 신임 MX사업부장에게 맡기고 신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신설한 로봇경험(RX)사업추진실을 중심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 사업은 개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상용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 주중 사업별 실행체계 구체화

사장단 인사에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후속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서는 사업별 실행체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의 글로벌 고객 대응을 강화하고 시스템LSI의 신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DX부문 역시 로봇 사업의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완제품 수익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속 조직개편에서는 사업별 과제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와 인력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창립 57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실적은 개선됐지만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제조 효율 고도화, 완벽한 품질 확보와 수율 향상이라는 반도체업의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서울 집값 하락세 확산 속 송파는 0.42% '뚝'

용산·동작 등 25개 구 가운데 7곳 하락
대출 규제·높은 재건축 부담금 등 영향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강남에서 한강벨트까지 번진 가운데, 전역으로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25개 구 가운데 7곳이 하락했으며, 송파구가 0.42%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와 강동구에 이어 용산·동작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별 단지에서도 가격을 낮춘 거래와 매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는 지난달 31일 3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최고 거래가 33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 낮다. 호가를 29억원으로 낮춘 매물도 나와 실거래가격 30억원 선이 붕괴될 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한강벨트 지역인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 전용 124㎡는 지난 7일 32억원에서 9일 30억원으로 호가가 2억원 떨어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매수 여력이 줄어든 데다 세 부담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부담금을 안게 된 재건축 단지 호가도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9월 32억원에 거래된 '개포주공6단지' 전용 60㎡ 매물은 지난달 3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0억원 아래로 내려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다음 달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지별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가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를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부담은 피했지만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먼저 재건축부담금이 매수 관망세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공사비와 사업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서다. 함 랩장은 "부담금을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가 거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 매수자는 관망하는 반면, 급히 팔 이유가 없는 집주인은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아 거래가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짙은 관망세 속에서 강남과 한강벨트의 낮아진 호가가 거래가격으로 굳어진다면 서울 아파트값 조정 압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채리 기자 cr56@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李 "신임 인선절차"

한성숙 국무총리 중심 수능 사후조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대응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와 시험 관리 체계 개선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최 장관은 22일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사의 수락 사실을 알리며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교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 사후 조치와 시험 관리 체계 개선은 한 총리가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관련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감독 인력 보강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수능 직전까지 대책이 보완되며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수능 이후에도 정치권과 수험생 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다.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사례가 54건, 문자 발송과 관계없이 적발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각종 시험의 관리 체계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와대가 함께 살피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외부 전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세종시교육감 2·3·4대 교육감을 역임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최 장관은 임기 1년여 만에 수능 대응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가계부채·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이 인상 뒷받침 요인"

›› 1면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서 계속

수도권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가계가 빚을 내 매수에 나서면 가계부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금통위가 앞선 인상 이후 주택 구입자금 수요를 가늠하려면 전체 주담대 증가폭과 함께 일반 주담대와 거래 흐름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연말 가계대출에는 입주 일정에 맞춰 나가는 잔금대출이 변수다. 정부는 11~12월 수도권 아파트 약 1만6000호가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수도권 거래 둔화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8·13 대책으로 집단대출 가용 금액이 늘어나고 4분기 입주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2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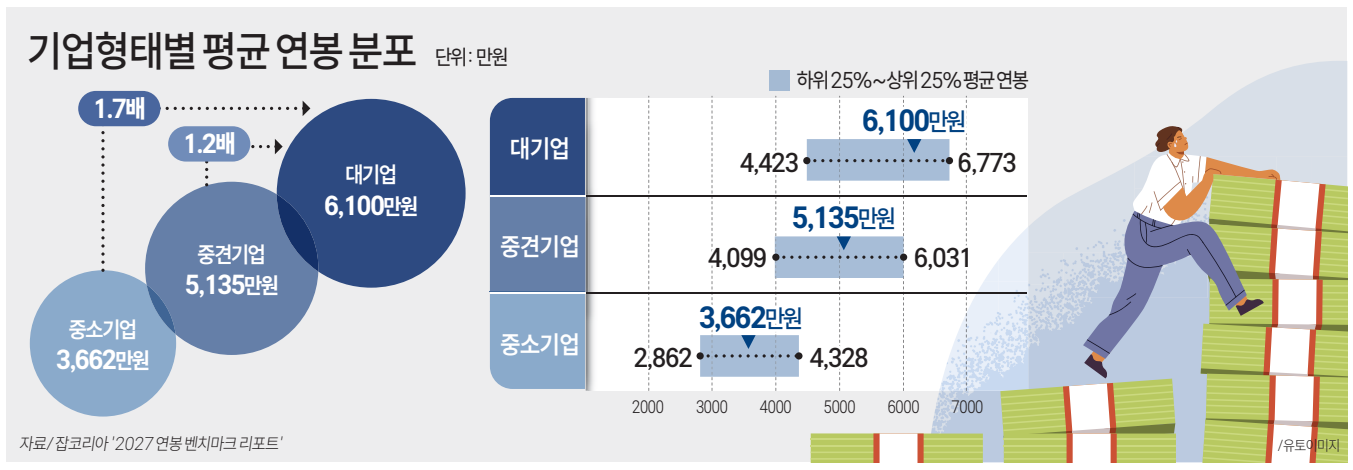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 측면도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청년 외면에 외국인 채용도 큰 부담… 中企 구인난 '이중고'

m-커버스토리

고용시장의 딜레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복지 등 중소기업 자체 한계 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감소, 구직 의사가 없이 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2014년 당시 934만명에서 지난해엔 797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27만5000명에서 42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년 인구 934만 → 797만명 감소
'쉬었음' 청년 27만 → 42만명 증가
공공·대기업 선호에 中企 취업 외면
소득·주거·복지 통합 지원책 절실

또 새 직장을 얻기위해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은 국가(공무원)·공공(34.4%), 대기업(28.7%)을 주로 선호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선 인재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025년 기준 13~34세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중소기업(4.3%)과 벤처기업(1.7%)은 자영업·창업(12.6%)보다 인기가 덜하다.

보다 높은 임금, 더욱 양질의 복지 수준을 찾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어서다.

잡코리아가 최근 발간한 '2027 연봉 벤치마크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대기업이 6100만원, 중견기업이 5135만원, 중소기업이 366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기업은 중견기업의 1.2배. 중소기업의 1.7배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중간인 50% 연봉 범위는 대기업이 4423만~6773만원, 중견기업이 4099만~6031만원으로 상당 부분 겹쳤다. 중견기업 상위 25% 경계(6031만원)는 대기업 평균과 69만원 차이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 상위 25% 경계(4328만원)는 대기업 하위 25% 경계(4423만원)보다 낮았다. 결과적으로 중견기업은 연봉만으로도 대기업 인재와 경쟁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직급, 역할 범위, 근무 조건 등 연봉 외에도 보상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어렵게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확보에 더욱 애로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하우 전수도 어려워져 개별 기업 차원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복지 전 과정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 사업주 장려금 확대 ▲근로자 지원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장려금 및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도심 임대주택 물량 확보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입주 우대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 물량 확대 ▲지자체 청년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입주 우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복지 바우처 신설 ▲장기 재직(3·5·10년)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청년 안오는 中企 일자리 대안은 외국인력 뿐인데

청년 채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댈 곳은 외국인력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고용해왔다. 그러다 주문이 밀릴 때면 어쩔수 없이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써 공장을 추가 가동하기도 했다. 바로 바로 인력 수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의 또다른 기업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채용했다 걸렸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해당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특정활동(E-7) 비자 인력을 해외에서 새로 들여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中企 83.6%, 내국인 구인난 호소
복잡한 비자 절차에 인력 수급 차질
언어 장벽·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입국 전 한국어·직무교육 강화 시급

그런데 해당국으로부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고, 국내 출입국사무소도 업무가 주먹구구식이어서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총 체류 외국인 293만1688명 가운데 11.7% 수준인 34만438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 비율은 2021년 당시 19.9%까지 치솟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비자인 E-7은 9월 말 현재 국내에 9만1827명이 활동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1만6739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1만3985명), 중국(9898명), 인도(1695명), 미국(1370명) 순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8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60.2%)과 '숙식비 등 인건비 부담'(28.2%) 때문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70.6%)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 상황(15.4%) ▲동료 간 갈등 발생(4.1%)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낮은 의사 소통은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져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개월 미만 외국인은 4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3년 이상은 돼야 내국인의 94.9%까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장을 역임한 한 기업인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채용하자마자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전 일정 수준의 한국어 소통 능력과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인건비는 급여(218만1000원), 잔업수당(42만7000원), 부대비용(4만7000원)을 포함해 265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인 대비 96.1% 수준이다. 여기엔 숙식비는 뺀 것으로, 올해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1명에게 주는 숙식비는 매달 평균 43만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건비와 숙식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이 받는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1면 '임금·복지 격차… '서 계속

中企 청년 70%, 2년 내 퇴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서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다 그만둔 청년(191명)의 재직기간은 절반이 훌쩍 넘는 58.9%가 1년 미만이었다. '2년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4.6%로, 10명 중 7명 이상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떠난 셈이다.

퇴직 사유(복수응답)로는 '낮은 임금 수준'이 41.4%로 가장 많았다. 전체 구직자까지 포함해 일자리 선택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는 절반이 훌쩍 넘는 64.7%가 '임금 수준'이라고 답해 돈을 많이 주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고려 요소 중 '기업 규모'는 9.7%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최소 월급(세전 기준)은 63.4%가 '250만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8%는 '300만원 이상'을 바랐다.

청년 퇴사 주원인 '낮은 임금'
大·中企 임금·복지 격차 확대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63.3% 수준이었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더욱 벌어져 2025년엔 60.1%까지 하락했다. 2025년 기준 평균 임금은 대기업이 663만1000원, 중소기업은 398만6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 수준도 2010년 당시 60.8%에서 2024년엔 34.6%로 떨어지며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 인구 축소,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성장기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채용보조금보다는 임금 및 보상격차 완화, 직무훈련, 경력개발, 중소기업 간 공동인재 활용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韓 성장률 3%대 후반 전망에도… 청년 취업자 48개월째 '감소'

IMF·KDI 등 성장률 전망 상향
청년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비정규직 비중 46% 역대 최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국내외 기관이 늘었다. 3%대 후반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고용 상황은 녹록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작년 수준인 1%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48개월째 감소 행진을 기록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3.3%에서 3.9%로 올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5%에서 3.7%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에서 3.8%로 높여 잡았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2023년 1.5%, 2024년 2.2%, 2025년 1.1%에 그친 바 있다.

문제는 성장세가 일자리 창출로 전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은 9월(11만3000명)과 10월(13만9000명) 등 두 달 연속으로 10만 명대 초반에 그쳤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성장률이 1.1%에 불과했던 지난해(19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10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로 19만6000명 줄며 48개월 연속 후퇴를 보였다. 이들 고용률도 42.9%로 30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 원인으로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기업이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업무방식 급변이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다.

이 같은 상황에 자영업으로 눈 돌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29세이하 자영업자 수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19.4%) 증가했다. 30대 자영업자도 65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7.7%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창업 동기로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를 꼽은 비율은 21.7%로 지난해(17.9%)보다 3.8%포인트(p) 올랐다.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인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322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6%(148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도 7.3%에서 27.4%로 크게 높아졌다. 넷에 하나는 이른바 '알바'인 셈이다.

청년층 고용 불안은 소득격차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소득은 4.1%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전체 가구 평균(4.5%)을 밑돌았다. 39세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로 전체 평균에 못 미쳤다. 올해 1분기에는 39세이하 가구만 마이너스(-1.7%)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청년층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초점을 둔다. 첫 취업 지원, 일 경험-취업연계 강화 방안,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사회진출 초기 자산형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있었다 하락장 물려 집 잔금 못 치를 판”

코스피 4800 ‘패닉’

#.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12월 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1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서다. 최씨는 “지난 6월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 나면서 돈을 뺄 상황이 아니라서, 급하게 은행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4800선까지 밀려나는 것을 보니 밤잠이 오질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마감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이달 개인 삼전닉스 3.2조 매수, 손실 커
美 반도체 3배 추종 ETF ‘속슬’ 32%↓

나스닥 5.28% 하락, 앤트로픽 8.5% ‘뚝’
엔비디아 14% 떨어져 52주 신저가 기록

전문가들, 반도체 업황전망 크게 엇갈려
이번주, 주가 향방 가르는 ‘빅위크’ 예상

지난 20일 한국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앤트로픽의 상장에 대한 기대보다 인공지능(AI) 투자 규모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약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삼성전자는 7.01% 내린 18만3100원, SK하이닉스는 5.92% 하락한 111만3000원에 정규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개미)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해 올해 4월 수익률이 50%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며 “언제까지 하락장이 이어질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주식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어제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 있었다” “전문가들 말 믿고 버티기 하다 연봉 날아갈 판” 등 망연자실한 반응이 잇따랐다.

코스피가 4800선까지 밀리자 전문가들조차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실적을 고려하면 낙폭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미국 긴축 통화정책,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반등 시점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삼전닉스 폭락에 개미들 패닉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모(26)씨는 “신혼 전셋집 마련에 보태려고 취업 직후부터 모은 6000만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22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출은 막혀 있고 주식은 떨어지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 4번째로 수출액 1조 달러 달성했다는데 내 주머니는 왜 이렇게 가볍냐”는 하소연도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 2일~20일) 개인은 삼성전자를 2조3612억원, SK하이닉스를 8077억원 순매수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 각각 첫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개미들 손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도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ETF ‘속슬(SOXL)’을 지난해부터 보유한 이모(32)씨는 “이미 1000만원 넘게 손해를 봤는데 더 떨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꾸준한 상승가도를 예상했던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속슬은 31.83% 폭락했다. 서학개미들 투자 비중이 높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8% 하락했다. 상장 이틀째인 앤트로픽은 전날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며 8.50% 내린 88.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공모가인 83달러 부근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14.01%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4위로 주저앉았다. 지난 10월 6일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48%가량 내렸다. 중국 스파이가 연루된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미국산 AI 칩이 사용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제한하는 등 규제에 착수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영향이다.

◆“가격 상승 지속” vs “내년 재고 조정”…美 물가·금리 변수

반도체 업황 전망은 크게 갈린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글로벌 D램 수요가 올해보다 25% 증가하는 반면 공급 증가율은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D램 평균판매가격이 계약가격 기준 올해보다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 달간 D램과 낸드의 현물가격은 하락했지만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계약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두 가격의 괴리가 20% 이상으로 벌어졌다며 반도체주에 대한 비관론이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의 판단은 다르다. 이 연구원은 올해 D램 공급업체의 출하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웃돌면서 유통망에 재고가 쌓이고, 이것이 내년 2~3분기 재고 조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과 AI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이런 전망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2% 낮추고 목표주가를 1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내렸다.

두 전망을 가를 것은 메모리 계약가격과 고객사의 실제 발주량이다. 현물가격 하락에도 계약가격이 오르고 AI 서버 수요가 유지된다면 주가 하락이 실적에 비해 지나쳤다는 평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재고 증가가 계약가격 인하와 이익 전망치 하향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조정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주가 주가 향방을 가르는 ‘빅위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델 실적을 통해 AI 서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으면 미국의 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26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결정과 함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금통위의 메시지가 줄어든 증시 자금의 복귀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시총 1조 상장종목 연초대비 26개 줄어

거래소, 올해 초 237개→211개 11% 증발
시가총액도 10개월만에 4000조 아래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이 1월 초보다 26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1조원 이상인 종목은 211개로 집계됐다.

같은 날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 16일(4,840.74)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코스피 내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은 237개였지만, 현재는 211개로 26개(11.0%)감소한 수준이다. 코스피가 4800선으로 돌아왔지만 시총 1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종목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국내 증시 전체(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산)의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은 지난 4월 29일 역대 최대인 405개까지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7월에는 300개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말 301개로 소폭 반등했지만, 최근 증시 급락에 다시 287개로 줄었다.

시총 10조원 이상인 ‘대형’ 종목은 지난 20일 56개로, 지난 5월 8일 역대 최대인 83개보다 27개(32.5%)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시가총액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3991조원으로,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40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당시(7450조원)와 비교하면 3458조원(46%),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도 부진했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지수가 비슷했던 지난 1월 16일 대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723개로, 총 932개 종목 중 78%에 달했다. 지수는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7.24%, 48.60% 상승했다. 연초에는 코스피 5,000선 돌파 기대감에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종목이 상승분을 반도체 ‘투톱’보다 더 빨리 반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윤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연금이 고객님께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평생 소중하게 모은 자산
신한이 잘 지키고 키워가겠습니다
연금은 신한
믿음이 信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 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820조 예산안 처리 시한 코앞인데… 여야 대치에 협상 '난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달 2일까지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최대 쟁점
예결위 이번주 소소위 체제 가동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과 이재명 정부 주요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안보다 12.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예결위는 24일부터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는 소소위를 연다. 여야가 주요 사업을 두고 예산소위 평행선을 달려, 이견이 큰 사업은 소소위에서 계속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소소위의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담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45조4000억원의 사업 지출 중 청년 계정에 13조3000원을 편성해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동력 계정엔 14조2000억원을 편성해 AI·전략기술, 지분 투자, 전력·용수 인프라에, 지방 계정엔 10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방 성장,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계정엔 7조6000억원을 편성해 첨단인재 양성, 고등·영유아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12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투자 및 재정 안정 대응을 위해 1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편성 예산 대부분을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AI(인공지능)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맞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재경위원의 불참 속에 민주당 재경위원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황이다.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162조3000억원), 협동조합사업(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633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1조8210억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3억원) 등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연말 정국이 급랭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파기환송을 계기로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이재명 정권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용철 청문회 앞두고 '공소 취소' 공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 '先 진상규명' 입장만 반복
野 보이콧 속 민주당 단독 일정 확정

오는 24일 열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의 공세 명분이 약해진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라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여당 주도로 확정됐고, 자료 제출 지연 논란까지 겹치며 '반쪽 검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지명된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라는 취지로 응답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성남 라인'인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권이 이미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낙인찍기'라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 역시 '반쪽' 검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고,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은 의결이 보류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하고 성남시장직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력을 둘러싼 '성남 라인' 독립성 논란, 재단 대표 시절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 변호사 시절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를 변론하는 등의 형사 사건 수임 이력, 농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신고 연장 없이 방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변호사 휴업 신고 누락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조희대 탄핵 속도… 법조계는 회의적

당론 채택하고 연내 국회 처리 목표
'중대한 위법 행위' 입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소추안(탄핵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유를 적어넣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추진단)' 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나 헌정 수호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협이 된다"면서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매뉴얼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또 양부남 단장을 포함한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이 사유로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양부남 단장은 앞서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어제(19일)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어떤 사유든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는 시선이 엇갈린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장동혁 "청년 미래 약탈하는 李 정권"

국민의힘,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당 청년정책기획단으로부터 4대 분야 16개 정책 제안을 전달 받고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책들로 이재명 정권의 국정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여러분의 제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국민의힘의 미래 정책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주거, 금융, 연금 등에서 실정을 거듭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바로 청년 미래 약탈 정권"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절벽이다. 이력서 100통을 넣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전세 실종, 월세 폭등으로 청년 주거는 악화일로"라며 "열심히 벌어도 월세는 내느라 돈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상장지수펀드)를 만들었다가 청년들의 주식 통장까지 탈탈 털리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 시험들이 AI(인공지능) 컨닝의 경연장이 됐다"며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나아가 "이제 불안감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Start, 다시 올라갈 기회'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선 ▲'기금운용제 예외 규칙 사후검증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 변경 위한 예외 조건과 위험 분석 의결 전 공개 및 1년 뒤 사후 평가 공개 보고 등이 제안됐다. /박태홍 기자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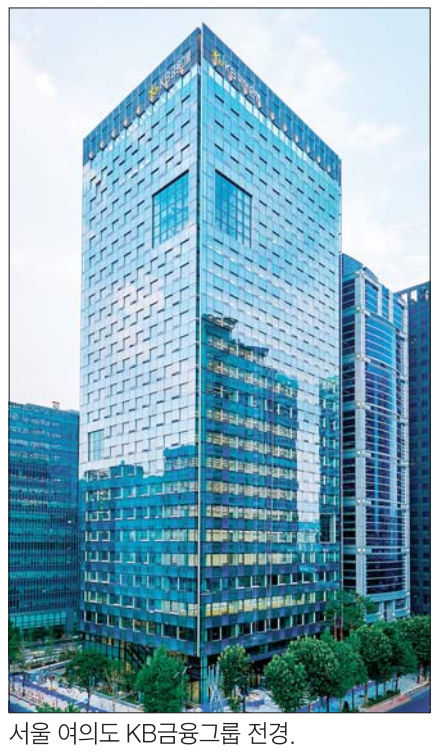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KB금융 이재근 號 출범… 연말 계열사 CEO인사 '시험대'

찬성률 97.69%… 오늘 취임식
"글로벌 리딩금융 위해 역량 집중"
자회사 10곳 내달 31일 임기만료
첫 인사가 '이재근 호' 가늠 잣대


이재근 KB금융그룹 신임 회장.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전경.

KB금융그룹의 '이재근 체제'가 닻을 올렸다. 역대 최대 실적 속에서도 안정 대신 변화와 세대교체를 택한 만큼 새 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22일 KB금융에 따르면 이재근 신임 회장이 21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20일까지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단독 상정된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안건은 출석 주식 수 대비 97.6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윤종규 전 회장이 9년간 그룹을 이끈 뒤 2023년 양종희 전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데 이어 KB금융은 3년 만에 다시 수장을 바꿨다. 공식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 국내 1등 너머…변화 꾀하나

이 회장이 내건 비전은 '국내 1등 너머'다.

그는 후보 확정 직후 첫 출근길에서 "국내 금융그룹 1등이라는 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B금융이 상반기 역대 최고 성과를 냈고 주가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후보로 선임된 것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머니무브, 고령화 같은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 있다며 앞으로 3~5년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경영과 전략,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급격한 단절보다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점차 체질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양 회장 역시 연속성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이임식을 통해 "경영은 계주"라며 바통을 이 회장에게 건넨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과 증권, 보험과 카드의 경계를 넘어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고객에게 가장 좋은 해법을 주는 것이 하나의 KB로 함께하는 이유"라며 "과거의 방식을 넘어 KB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 첫 시험대는 계열사 CEO 인사

당장 직면한 과제는 인사다. KB금융 자회사 11곳 가운데 10곳의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다음 달 31일 끝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직개편과 계열사 CEO 인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진용을 새로 짜야 하는 만큼 첫 인사가 '이재근호'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

관심은 국민은행장에 쏠린다. 이환주 현 행장(1964년생)은 신임 회장보다 두 살 많다.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와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은 1968년생이다.

다만 이 회장은 나이에 따른 기계적 세대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후보자 지명 당시 "젊은 KB의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닌, 의사결정을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역량과 전문성, 조직원의 헌신을 끌어낼 리더십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 인사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등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높아진 실적 눈높이…주주환원 지속

높아진 실적 눈높이는 부담이다.

KB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조6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었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회계처리를 반영해 당초 잠정치보다 1486억원 낮춰 정정 공시했지만 사상 첫 연간 순이익 6조원 돌파는 여전히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3분기에는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시장 변동성으로 분기 순이익이 1조758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7% 줄었다. 양 전 회장 체제에서 공식화한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신임 회장의 몫이다.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가는 일도 과제다. KB금융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2025년 총주주환원율을 52.4%까지 끌어올렸고, 올해 2월에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총액 6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예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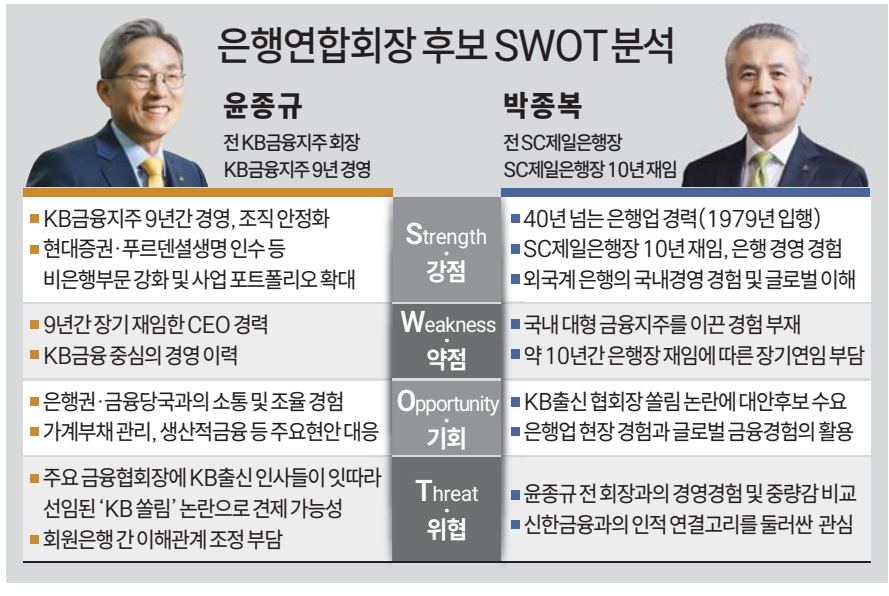
한편 1966년생인 이 회장은 서울고와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주택은행에 입행해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내며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해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이끌었다. 2022년 당시 은행권 최연소 행장으로 KB국민은행을 3년간 이끌었고, 올해부터는 글로벌과 자산관리(WM)·중소기업(SME) 부문을 함께 총괄해 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종합금융 성장 기여 vs 글로벌 금융 경영자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은행연합회장 최종후보 오늘 결정
윤종규·박종복 '인적 네트워크' 변수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 1명이 23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경영 이력과 금융권 내 인적 네트워크가 막판 승부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회추위는 조용병 현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시중은행 대표 6명, 특수은행 대표 3명, 지방은행 대표 1명,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 '금융지주 9년' 윤 vs '은행장 10년' 박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71)과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71)이다. 두 사람 모두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지만, 경영 이력과 강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윤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KB금융지주를 이끌었다. 취임 당시 내홍('KB사태')을 겪던 KB금융 조직을 안정시키고,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대증권과 푸르덴셜생명 인수 등을 통해 KB금융을 은행 중심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형 금융지주를 이끌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권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경험은 강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과의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거론된다. 지난 2023년 은행연합회장 잠정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스스로 고사한 바 있다.

박 전 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해 영업 현장을 두루 거친 정통 은행원 출신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간 SC제일은행장을 지내며 국내 은행업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금융그룹의 경영 경험을 쌓았다.

특히 외국계 은행을 이끌면서 국내 금융당국과 해외 본사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영업 현장에서 출발해 은행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만큼 은행업 실무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충북 청주 출신이다.

◆ 막판 변수 촉각

두 후보 모두 오랜 기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만큼 부담 요인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특정 금융그룹 출신 인사들의 협회장 쏠림 논란과 후보별 인적 네트워크가 막판 인선의 변수로 거론된다.

윤 전 회장의 경우 최근 주요 금융협회장 자리에 KB금융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된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이 여신금융협회장에,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가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회장까지 은행연합회장을 맡게 되면 주요 금융협회 수장에 KB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

박 전 행장은 대형 국내 금융지주를 이끈 경험이 없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꼽힌다. SC제일은행장을 약 10년간 맡으며 네 차례 연임한 만큼 장기 재임에 따른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현직 은행연합회장인 조용병 회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 회장이 박 전 행장에게 우호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전 행장이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억원, 유럽서 글로벌 금융안정 정책 논의

금융위,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럽 주요국을 방문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금융중개(NBFI) 등 새로운 금융 위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과 은행감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최종 합의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영국을 방문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고 유럽 주요 금 융당국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 금융규범 논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FSB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금융협의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G20 주도로 출범했다.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에서는 레버리지 거래 확대에 따른 위험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헤지펀드와 사모신용 등 비은행금융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요인 분석과 데이터 공백 해소, 기존 권고사항 이행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K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싱가포르서 데모데이 행사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6'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해외 투자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현지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6은 전 세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투자자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다. KB금융은 금융위원회의 '2026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 핀테크 기업 10개사의 'K-핀테크 공동관' 전시와 해외 홍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들은 금융 IT, 디지털 자산, 외환·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금융회사와 현지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금융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안상미 기자

AI용 반도체 메모리 불확실성 커져
삼성·SK, 대규모 투자전략 시험대

최근 제품별 수급 전망 엇갈려
HBM 수요는 2027년까지 견조
공장증설 등 속도조절 과제 부상

인공지능(AI)용 반도체 메모리 제품별 수급 전망이 최근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신규 시설 가동 시점에 맞춘 설비투자 속도 조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2027년 낸드플래시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 과잉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D램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겠지만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전환으로 가격 상승폭이 분기마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시설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2028년 이후에는 고객사 수요와 생산능력 확대 속도가 시장 상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시설인 5라인 착공식을 열었다. 오는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양캠퍼스에는 5개 라인 구축을 위해 건설비 6조원과 장비 투자비 40조원 등 총 46조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 8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Y2)과 청주 M17 신설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D램과 HBM 생산을 위한 Y2는 2029년 6월, 낸드 생산시설인 M17은 2028년 12월 첫 클린룸 개방을 목표로 한다. 실제 생산능력 확대는 고객사 수요에 맞춰 장비 반입 시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확대하며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계약을 통한 수요 확보와 별개로 실제 출하 규모는 고객사의 구매 일정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 글로벌 낸드 비트 공급량이 전년 대비 25~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주문 축소가 북미 고객사의 구매 확대분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 1분기 낸드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객사 재고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올해 3분기 노트북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5.8% 감소했다. PC 제조사와 북미 유통 채널의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는 올해 4분기와 2027년 1분기 메모리 구매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도 중장기 수요의 변수로 꼽힌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지난 20일 미국 내 미착공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가운데 2028년 이후 가동 예정인 약 66기가와트(GW) 규모가 전력망 연결 지연과 인허가 문제, 신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가 지난 5일 인용한 스위스 투자은행 UBS 분석에 따르면 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 신규 증설 예상 물량의 약 30%가 건설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HBM 수요는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19일 HBM 시장 보고서에서 AI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주문형반도체(ASIC) 출하 확대로 HB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의 영향도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업체들은 공장을 짓더라도 장비를 언제 들여놓느냐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수요뿐 아니라 신규 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모셔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막바지 단계

안전성 검토 마쳐… 연내 美 서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성 검토를 마쳤다. 웨이모와 죽스 등 경쟁업체가 이미 무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본격적인 무인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모셔널은 지난 19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SUD와 현대차그룹, 우버가 참여한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셔널은 연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TUV SUD는 모셔널의 자율주행 안전성 입증체계가 관련 모범지침에 부합하는지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통합 상태를, 우버는 승객 안전과 서비스 운영 준비를 살폈다. 이번 검토는 상용화 준비의 일환이다. 실제 무인 유상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네바다주의 차량 운행·등록 및 여객운송 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모셔널은 2020년 현대차그룹과 미국 앱티브가 공동 설립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다. 아이오닉 5 기반 레벨4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다. 레벨4는 정해진 구역과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단계다.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을 주행하고 있다. /모셔널

모셔널은 지난 3월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우버 연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모셔널이 발표한 누적 자율주행거리는 260만마일(약 418만㎞), 승객 탑승 실적은 14만5000건 이상이다.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의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올해 3분기 총 2546억 8200만원을 출자했다. 모셔널의 1~9월 순손실은 427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별도로 웨이모에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 공급도 추진하며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차량 공급을 병행하고 있다.

무인 운행을 시작하더라도 차량 유지·관리와 원격 지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곧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상용화 이후 운행 지역을 넓히면서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과를 가를 변수다.

/이승혁 기자 sh95@

류재철 "협력사와 미래 성장기회 만들 것"

〈LG전자 CEO〉

LG전자, 협력회 워크숍 성료

"LG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조 혁신을 지속하며 미래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자."

22일 LG전자에 따르면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경기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열린 '2026 협력회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력사와의 제조 혁신을 통해 1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류 CEO를 비롯한 LG전자 최고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88명이 참석했다. 협력회는 LG전자 협력사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구성한 자발적 협의체다.

류 CEO는 "부품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으로 직결되듯,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LG전자의 경쟁력"이라며 협력사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LG전자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2026 협력회 워크숍을 열었다. 류재철 CEO가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이날 LG전자와 협력사들은 공정 자동화와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회와 함께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와 하반기 워크숍을 열고 경영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6' 비즈니스리더 세션에서 AI 네이티브 사회를 위한 교육과 인재 육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후지이 테루오 도쿄대 총장, 최 회장, 사와다 준 NTT그룹 회장, 스기무라 미키 소피아대 총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SK그룹

최태원 "AI 네이티브 대학, 설계부터 달라야"

〈SK그룹회장·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최종현학술원 도쿄포럼
최 회장, AI시대 새로운 교육체계 강조
"지식 전달 넘어 지혜 기르는 역할해야"

"AI 네이티브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설계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2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6'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적인 환경으로 자리 잡는 시대에 맞춰 대학 교육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대학이 협력해 AI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변혁적 기술로서의 AI: 인류, 지식, 그리고 문명'을 주제로 도쿄포럼 2026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앤 부베로 프랑스 정부 AI 특사, 이토 렌 사카나 AI 공동창업자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20일 영상 환영사에서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AI가 만든 가치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변화의 방향을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지식 전달을 넘어 지혜를 기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일에는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비즈니스리더 세션에 참석해 사와다 준 NTT그룹 회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스기무라 미키 소피아대 총장과 AI 시대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AI 네이티브 사회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당연히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라며 "지금의 대학 체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에는 정해진 해답이 없는 만큼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인재 육성 사례로는 SK가 지난달 선보인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 '아이젠(AIGEN)'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팀 프로젝트를 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라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무벡스 주식 일부 현금화

주주환원 확대·자본 효율성 개선 목적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현대무벡스 보유 지분 일부를 현금화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 보통주 650만주를 1025억7000만원에 처분한다고 22일 밝혔다. 매각 규모는 지난달 16일 최초 공시한 예상금액 1157억6500만원보다 131억9500만원 줄었다. 현대무벡스 주가 하락에 따라 주당 처분가격이 1만7810원에서 1만5780원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매각 대상 주식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3곳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넘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거래와 함께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맺었다. 현대무벡스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거래 상대방과 정산하는 구조다.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락하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조기 정산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48.87%에서 43.04%로 5.83%포인트 낮아진다. 지분 축소에도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中 전기차 점유율 상승폭 세계 3위… 韓 생산기반 보호 비상

국내 점유율 4년 새 33.9%로 급등
멕시코·브라질 이어 상승폭 3위
대중 자동차 무역적자 6조 육박
美·EU·日 자국 車산업 보호 강화
업계, 韓 생산세액공제 도입 촉구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BYD 씨라이언6 DM-i. /차현정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 상승폭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이 관세와 세제 지원으로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32.8%포인트 상승했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중국을 제외한 9개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였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0%에서 90.7%로 높아졌다.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81.6%포인트 올라 뒤를 이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스페인 21.9%포인트, 독일 5.1%포인트, 일본 2.3%포인트, 인도 0.9%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2%포인트, 1.1%포인트 낮아졌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확대가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멕시코·브라질과 달리 한국은 자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고용이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은 관세와 생산 지원을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데 무게를 두고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국은 중국산 수입 승용차에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수출 비중이 큰 산업구조상 주요국과 같은 고율 관세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며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기차를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면서 무역적자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약 42억3000만달러(약 6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인 약 25억1000만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약 44억달러로 79.2% 늘어난 반면 대중국 자동차 수출액은 약 1억7000만달러로 34.9% 줄었다.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과 BYD 등의 국내 판매 확대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K-콘텐츠 해외 투자유치 확대

콘텐츠진흥원과 글로벌 진출 협약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왼쪽)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윤지 원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진출 유망 콘텐츠기업 및 프로젝트 발굴·정보 공유 ▲국내외 투자자 및 사업 파트너 연계와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관련 행사 협력과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연계한 기업 성장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등을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글로벌 리그펀드 및 해외 VC 글로벌 펀드 등을 통해 구축한 해외 투자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우수 콘텐츠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K-EXPO, U-KNOCK 등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과 해외 콘텐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발굴 및 현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전문성과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통합 진에어 본사보다 지역경제 실익 우선

대한항공, 서울·부산 기능 분담 추진
부산 정치권, 본사 부산 유치 요구
김해공항 국제선 33개 노선으로 확대

통합 진에어의 본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부산의 본사 유치 요구와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서울·부산 기능 분담안이 맞서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본사 이전 여부보다 부산발 항공편 확대와 관광 수요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말까지 부산시·국토교통부·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구축계획(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에서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부산에는 업무 분야별 본사 기능과 영남권 특화 영업·마케팅, 허브 운영 기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에어부산 통합에 따른 지역 거점 항공사 소멸을 우려하며 본사의 부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산업은행도 부산 본사 설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B737-800. /진에어

본사 소재지에 대한 이견과 별개로 부산발 노선 확대와 운항·정비 기반 확충 계획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합병을 승인했으며, 통합 진에어는 내년 3월 17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통합 진에어는 김해공항 국제선을 기존 28개에서 33개 노선으로, 주간 운항 횟수를 281회에서 339회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 4개와 동남아시아 1개 노선을 신설하고, 부산 근무 인력 1184명(에어부산 997명·진에어 187명)의 고용을 승계하는 한편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김해공항에 배치된 항공기 21대도 추가 확충하고 기존 운항통제·훈련시설을 유지하면서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부산 거점 확대 계획은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집계한 지난 1~10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033만56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중진공, 직원이 만든 AI로 업무혁신 나선다

사내 AX 챌린지에 41개 팀 참여
10개 개발 과제 중 우수작 4개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비효율을 직접 개선하기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사내 'AX 챌린지'를 열고 선정된 우수 AI 서비스를 현업에 적용, 정식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에는 총 41개 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0개 팀을 선정해 약 3개월간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이후 10개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직원 체험평가와 전문가 발표·시연평가를 거쳐 업무 활용성과 향후 발전·확산 가능성이 높은 4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전략적 예산관리시스템 ▲대출채권 사후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정책자금 현장운영 지능형시스템 FOO ▲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경영위기 선제대응 시스템이다. 이 중 FOO(Field Operation Optimizer)는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대회 AX혁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했다.

중진공은 대외 경진대회에서도 성과를 냈다. 이번 사내 AX 챌린지에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와 개념검증(PoC)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재경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한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 본선에 진출했다.

중진공은 이번 챌린지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업무혁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챌린지에서 도출된 10개 개발 과제의 아이디어와 PoC 성과는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현업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FOO 등 적용성이 높은 과제는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고, 나머지 개발 과제에 대해서도 2027년 정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검증된 AI 활용 모델을 실무에 정착시키고 기관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전자책 구독 이벤트

코웨이가 교보문고와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고객 이벤트를 펼친다.

22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올 하반기부터 진행해 온 공동 프로모션에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반응으로 상호 시너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보문고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코웨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간 내 이벤트에 참여한 코웨이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sam 무제한 1년 이용권'과 '전자책 전용 1만원 캐시'를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코웨이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닷컴에서 정회원 인증을 완료한 후 '코웨이 멤버스 클럽' 내 교보문고 이벤트 페이지에 가을에 읽고 싶은 책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김승호 기자

大·中企 상생 성과 공유·협력기회 모색

중기부, 23~27일 14개 행사 운영
기업·국민 참여로 상생 성과 공유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동반성장주간'을 운영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동반성장주간은 '상생협력의 결실,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메시지 아래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상생협력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열린다.

특히 기존의 포상 중심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상생협력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참여·확산형 행사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주간 동안 국회 정책 토론회, 사업별 설명회, 우수사례 공유, 대기업 상생협력 발표, 지역사회 동반성장 세미나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먼저 동반성장주간 주요 행사인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기념식'은 오는 2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연다.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유공 포상 수상자, 기업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선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해 진행하던 유공 포상을 통합해 개최한다. 또한 우수사례 전시와 참여형 이벤트 등을 마련해 참석자들이 상생협력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주간 동안 상생협력의 성과를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질 예정이다.

동반성장주간 초반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결제, 상생협력기금 등 주요 상생협력 제도의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제도 활용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승호 기자

제4회 2026 GLOBAL ACX AWARDS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 전환 확산을 이끄는 도약의 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S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공유와 함께 국산 AX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귀빈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01.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3:30 ~ 16:00** (본행사 14:00 ~ 16:00)
장 소	**메타빌드빌딩 AI Space Center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B1F)
주최 / 주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사)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인공지능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PMO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AI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인공지능SW협회,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외
시상 부문	특별공로상 / 인재상 / AI 활용우수사례상 / 제품·서비스상

02.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 진행
13:30 ~ 14:00	30'	등록 및 VIP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4:00 ~ 14:05	5'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환영사 및 개회사	(사)한국SW·AX총연합회장
14:10 ~ 14:25	15'	축사 및 격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의원 주관언론사
14:25 ~ 14:45	20'	**정책기조연설 :**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5 ~ 15:00	15'	국산 AX 혁신 제품·서비스 성과 및 도입 성공사례 발표	대표 수상기업 1개사
15:00 ~ 15:05	5'	심사경과 보고 및 최종 수상자 발표	심사위원장
15:05 ~ 15:40	35'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본 시상**	부문별 유공자 및 우수기업
15:40 ~ 15:55	15'	전체 수상자 및 주요 내빈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폐회선언 및 장내 정리	사회자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캔

[참가 신청 및 참석 회신 안내]

- 온라인 사전등록 URL : https://www.kswict.or.kr/awards-ceremony-2026
- 원활한 행사진행 및 지정 좌석 배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사무국 (문의: 02-858-8510 / 사무총장 박환수)

3N 빠진 지스타… AI·해외 게임사·인디 존재감 키웠다

넥슨·엔씨·넷마블 등 불참에도
전시 부스 3445개… 176개 늘어
3년 만에 대형 e스포츠 경기 재개
네이버 치지직 생중계·스팀 협업
국내 대형 게임사 참여 회복 과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이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이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고 해외 게임사와 인디 개발사들이 전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게임 신작을 공개하는 무대를 넘어 AI와 콘텐츠, 글로벌 게임산업이 교차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 수가 줄었음에도 전시 부스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외형적 성장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스타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도 부상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6'에는 41개국 1237개사가 참여해 총 3445부스를 마련했다. 지난해 44개국 1273개사, 3269부스와 비교하면 참가 기업은 36개 줄었지만 부스는 176개 늘었다. 전시 공간은 약 5.4% 확대된 셈이다.



벡스코 전경 /최빛나 기자

◆22년 만에 게임사 아닌 AI 기업이 간판…산업 경계 허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인 스폰서다. 지스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게임사가 아닌 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메인 스폰서를 맡았다. 뤼튼은 AI 캐릭터·스토리 플랫폼 '크랙'을 앞세워 200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기존 게임쇼가 개발사가 완성한 게임을 이용자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콘텐츠 경험까지 전시 영역에 포함됐다.

게임과 AI의 접점이 단순한 개발 효율화를 넘어 콘텐츠 창작과 소비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AI 플랫폼의 게임쇼 참여가 실제 게임 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넥슨·엔씨·넷마블 빠진 자리…해외 게임사 존재감 확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빈자리는 올해 지스타가 마주한 또 다른 변화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이른바 '3N'은 모두 일반 관람객 대상 BTC 전시관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 크래프톤과 웹젠은 신작 시연을 중심으로 관람객과 접점을 넓혔다. 해외에서는 호요버스를 비롯해 세가, 캡콤, 코에이 테크모 게임스, 넷이즈게임즈, CD 프로젝트 레드 등이 참가하며 글로벌 게임쇼로서의 외연 확대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제2전시장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가 마련됐다. 해외 주요 게임사 5곳이 약 150대의 시연대를 운영하며 국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 해외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게임을 하나의 전시 콘텐츠로 묶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의 참가 여부에 따라 전시 경쟁력이 좌우됐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내 대표 게임사들의 지속적인 불참이 지스타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인디게임·e스포츠·온라인까지…전시장 밖으로 확장

인디게임의 위상도 달라졌다. 올해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2.0: Galaxy'에는 28개국 108개 개발사가 참여해 250부스 규모로 전시를 진행했다. 대형 게임사 중심의 신작 경쟁에서 벗어나 중소 개발사와 글로벌 인디게임을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e스포츠도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는 3년 만에 대형 e스포츠 경기가 재개됐으며,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시아 스테이지 3 그랜드 파이널'이 진행됐다.

온라인 접점도 확대됐다. 네이버 치지직과 연계한 생중계,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과의 협업을 통해 부산을 찾지 못한 국내외 이용자에게도 게임을 알리는 구조를 강화했다.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결합한 셈이다.

올해 지스타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규모보다 방향성에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의 신작 공개에 의존하던 게임쇼에서 AI와 글로벌 게임사, 인디 개발사, e스포츠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행사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외연 확대가 곧 경쟁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들의 참여를 다시 끌어내는 동시에 해외 개발사와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찾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분명해졌다.

결국 지스타 2026은 국내 최대 게임쇼가 글로벌 콘텐츠 축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GU+, AI 조직 개편… 인프라·플랫폼 분리

엔터프라이즈부문장에 김홍근 부사장
커스터머부문에 권용현 부사장 선임
디지털사업부 신설, AI SW사업부 개편

LG유플러스가 전사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G CNS 출신 김홍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기업간거래(B2B) 사업 총괄로 기용하고, AI 데이터센터와 토큰 서비스 등 사업 영역별로 조직을 분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AI 사업 실행력 강화와 기술 역량 결집이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조직을 재편해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분산된 AI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먼저 기업간거래(B2B)를 담당하는 엔터프라이즈부문 수장은 LG CNS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을 맡았던 김홍근 부사장이 선임됐다. 사업 구조는 'AI인프라사업부'와 'AI 플랫폼사업부' 중심으로 재편한다. AI인프라사업부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유·무선 통신 인프라 사업의 시너지를 높인다. AI플랫폼사업부는 AI 컨택센터(AICC), AI 에이전트 등 기존 사업과 함께 소버린 AI, 토큰 서비스 등 신규 AI 사업 확대에 집중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소비자간거래(B2C) 사업을 담당하는 커스터머부문은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담당한 권용현 부사장이 이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과 AI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디지털사업부'를 신설한다. 기존 AI사업그룹은 'AI SW사업부'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CTO 산하에 분산돼 있던 AI 연구·엔지니어링·상용화 기능을 '서비스개발그룹' 중심으로 통합한다. AI 기술 연구부터 상품 개발과 상용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사업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CTO 총괄은 과거 조직 내에서 AX서비스개발그룹장을 담당했던 정성권 전무가 맡는다.

통신 본업에서는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혁신을 지속한다. 네트워크(NW)부문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자율운영 네트워크 전환을 가속화해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문장은 NW인프라그룹장을 담당했던 노성주 전무가 맡는다.

이 밖에 'AX제휴혁신담당'과 '정보보안 AX담당'을 신설해 AI 실행력과 보안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내 AI 업무 에이전트 활용 확대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msjo@

SKT 에어, 최저 6900원 5G 요금제 선봬

무신사와 블프 특가 이벤트

SK텔레콤은 자급제 단말 전용 통신 서비스 에어(air)가 '무신사 무진장 2026 블랙프라이데이'에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SK텔레콤은 가격 할인과 무신사 쇼핑 혜택 등을 동시에 선보인다. 이를 통해 청년 고객의 취향과 일상에 접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행사 대상은 010 신규 가입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진장의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에 가입하면 된다. 행사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고객들은 특가 상품을 통해 12개월 동안 5G 요금제를 최저 6900원부터 최대 1만 69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에어 7GB·15GB·30GB·71GB 등 4개 요금제는 가입 시 제공되는 보너스팩 포인트를 통해 실 체감가 1만 원 이하에 이용할 수 있다. 상위 요금제인 에어 100GB는 실 체감가 1만3900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에어 엑스는 실 체감가 1만6900원이다. /조민선 기자

크래프톤은 신작 발굴, 웹젠은 IP 확장

지스타 2026

크래프톤, 다양한 장르 4종 선봬
웹젠, 웹툰 원작 게임·신규 IP 공개

'지스타 2026'에서 게임사들의 승부수가 엇갈렸다. 크래프톤은 다양한 장르의 신작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제시했고, 웹젠은 신규 지식재산권(IP) 확보에 집중했다. 중국 호요버스와 넷이즈게임즈는 신작 시연과 인기 IP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6에는 크래프톤과 웹젠, 호요버스, 넷이즈게임즈 등 국내외 게임사들이 참가해 신작 시연과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10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한 크래프톤은 150부스 규모의 전시관에서 '타래: 언바운드', '에이지 트위스터', '왈츠앤잼', '템빨용사' 등 신작 4종과 대표작 'PUBG: 배틀그라운드'를 선보였다.

특히 동양 다크 판타지 액션 RPG '타래: 언바운드'는 신규 클래스 '투귀'를 처음 공개했으며, 2인 협동 어드벤처 '에이지 트위스터' 등 장르별 시연을 통해 이용자 반응을 확인했다. 배틀그라운드에 이은 차세대 흥행 IP를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웹젠은 웹툰 원작의 전략 RPG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LAST STAGE'를 전면에 내세워 첫 시연을 진행했다. 기존 '뮤' IP를 활용한 MMORPG '뮤 테오스'는 티저 영상으로 공개했으며, 서브컬처 게임 '테르비스' 등은 현장 이벤트를 통해 소개했다.

원작 팬덤을 게임 이용자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기존 흥행 IP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서는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4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호요버스는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쁘띠플래닛'과 전략 어드벤처 게임 '붕괴: 넥서스 아니마'를 국내에서 처음 시연했다. '원신', '붕괴: 스타레일', '젠레스 존 제로' 등 기존 인기 IP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신작 홍보와 팬덤 결집을 동시에 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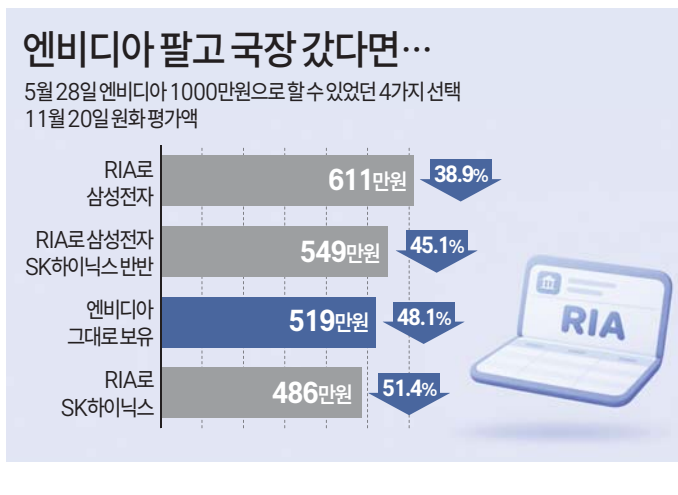
넷이즈게임즈는 산하 조커스튜디오의 신작 '렘넌트의 바다'를 비롯해 '원스 휴먼', '연운' 등을 선보였다. 특히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서는 '원스 휴먼'과 '연운'의 시연 및 현장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내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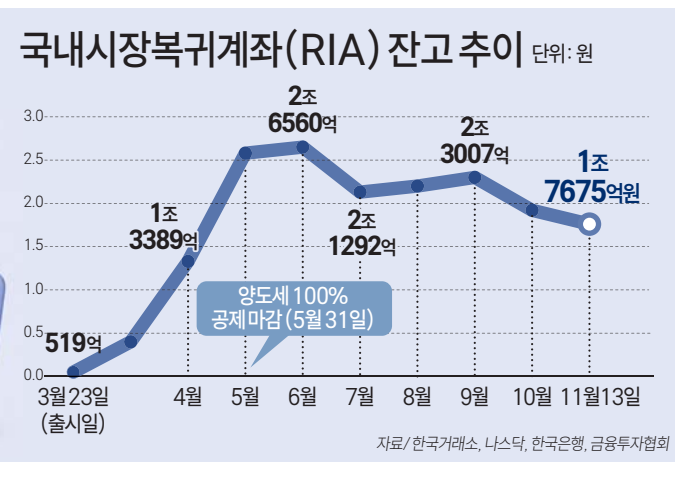
올해 신설된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는 세가와 캡콤, 코에이 테크모 게임스, CD 프로젝트 레드, 넷이즈게임즈 등 해외 게임사 5곳이 참여했다.

제2전시장에 약 150대의 시연대가 마련됐으며 세가는 '토탈워: 워해머 40,000', 캡콤은 '프래그마타', 코에이 테크모는 '인왕 3' 등을 선보였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더 위쳐 3'와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을 활용한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부산=최빛나 기자

“세금 아끼려 미장 팔았는데”… 국장 돌아온 개미들 ‘곡소리’

RIA 잔고 6월 말 정점 대비 33%↓
같은 기간 미국 증시도 하락해 손실
국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우선





자료/한국거래소, 나스닥,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대기업 9년 차 직장인 김모씨(35·남)는 요즘 증권 계좌를 열어보지 못한다. 김씨는 지난 5월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수익률 100%가 넘던 TQQQ(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ETF) 5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양도세 700만~800만원을 아끼려는 선택이었다. 이 가운데 3000만원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을 샀고, 돈은 내년 5월까지 RIA에 묶여 있다. 김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계좌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한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미장(미국시장) 팔아서 국장(국내 시장) 총알받이 됐다”라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RIA를 통해 국내 증시로 돌아온 서학개미들의 손실은 미국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던 투자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의 원인은 국장 복귀 자체가 아니라 국내외 증시의 동반 하락이었다는 얘기다. 5월 28일 엔비디아 1000만원어치를 팔아 RIA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면 20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611만원, SK하이닉스를 샀다면 486만원이다. 엔비디아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519만원이다.

주가만 놓고 보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삼성전자를 산 쪽은 엔비디아를 들고 있던 쪽보다 92만원 덜 잃었지만, SK하이닉스를 산 쪽은 33만원 더 잃었다. 엔비디아가 20일(현지시간) 하루에만 14% 급락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를 들고 있던 쪽이 두 종목을 절반씩 산 경우보다도 손실이 작았다. 하지만 세금까지 따지면 RIA로 옮긴 쪽이 유리하다. 위 계산은 양도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투자자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도 TQQQ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손실은 더 컸다. TQQQ는 5월 28일 83.68달러에서 20일(현지시간) 41.20달러로 50.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1501.6원에서 1330.8원으로 11.4% 내리면서 원화 기준 손실률은 56.4%로 불어난다. 5000만원이 2200만원 남짓으로 줄었을 것이란 계산이다. 반면 김씨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뒀고, 주식 손실률도 본인 추정으로 30% 정도라 RIA 계좌는 4100만원 안팎이다. 국내 주식 손실이 눈앞에 보일 뿐, 미국에 남았어도 피할 수 없었던 하락이었다.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믿고 5월 말 국내 증시로 유턴한 개미들은 한숨만 나온다. RIA 잔고는 5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12일 만에 6396억원 늘어 2조5839억원이 됐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온 시점은 국내 증시의 고점 부근이었다. 3월 출시 직후 20만원 안팎이던 삼성전자를 산 투자자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다. 6월 중순 90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20일 하루에만 5.21% 급락하며 4869.96으로 마감했다. 5월 28일 이후 SK하이닉스는 229만원에서 111만3000원으로 51.4%, 삼성전자는 29만9500원에서 18만3100원으로 38.9% 떨어졌다.

금투협에 따르면 RIA를 통해 가장 많이 판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1801억원), 가장 많이 산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국내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미장을 팔면 세제 혜택보다 평가손실이 더 크다” “코스피 4800선까지 추락하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라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들의 걱정은 RIA 잔고에서 확인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RIA 잔고는 6월 말 2조6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한 달 새 19.8% 줄었다. 11월 13일 기준 잔고는 1조7675억원으로 정점보다 3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계좌는 31만3594좌에서 35만4574좌로 오히려 늘었다. 계좌는 늘었는데 잔고는 3분의 1이 줄어든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RIA로 옮기려면 환율이 높고, 미국은 고평가돼 있고, 한국은 오를 거라는 세 가지 믿음이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환율이 이미 많이 내려왔고 미국 주식도 손실인 상황이라, 손절까지 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PBR 기준으로 거의 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긴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겠냐고 하면 안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난 여름 레버리지 ETF 수급 문제 등으로 개인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기대주’ 앤트로픽, 상장 이틀 만에 주가 흔들

하루 만에 시총 약 1090억달러 증발
공모주 절반, 기존 투자자에게 배정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공개(IPO)를 마친 뒤 거래 이틀째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월가에서 그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모주 배분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소외된 점, 임직원들에게 즉각 대규모 주식 매각을 허용한 점, 주관사들의 상장 초기 가격 설정 등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앤트로픽 주가는 전장보다 8.5% 내린 88.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90억달러가 증발했다. 장중에는 한때 전장 대비 15%까지 떨어지며 공모가인 83달러보다 불과 5센트 높은 수준까지 밀렸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공모주 배분 방식이다. IPO에서 배정된 810억달러 규모의 주식 중 절반 이상이 알티미터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초기 투자자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모주를 신청한 기관 가운데 약 60%는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록도 요청 물량인 약 100억달러의 절반 수준만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 등 대형 투자사에 상당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의 대규모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거래 개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첫 거래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 직후 주식 매각을 허용한 점도 하락 압력 요인으로 거론된다. 앤트로픽은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보유한 약 3억주를 즉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가 기준으로 약 260억달러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상장 후 수개월간 임직원의 보유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를 적용한다. 앤트로픽은 이례적으로 일부 임직원에게 즉각적인 매각을 허용했고, 이 주식의 매도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관사들이 가격을 지지할 수단도 제한적이다. 앤트로픽은 주관사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그린슈)이 이미 행사됐다고 밝혔다. 이 옵션은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때 주관사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 가격을 지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12월 15일에는 약 3억주의 주식이 추가로 거래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향후 매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앤트로픽과 주관사 측은 이번 IPO가 성공적이라는 입장이다. IPO와 동시 진행된 주식 매각을 합쳐 1000억달러 이상을 조달했고, 주가도 아직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AI로 불법 사채 무효심사

판독 속도 10배 이상 빨라져

불법 사채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무효확인서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메신저 대화와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증빙 판독 속도가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빨라져, 신청이 늘어난 피해자 구제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지난 9월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발급 신청이 크게 늘었다.

불법 사채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메신저 대화 중 대출 조건이 바뀌는 등 거래 방식이 복잡하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돼 그동안 담당자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직접 대조하며 이자율을 계산해 왔다.

새 시스템은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연이자율이 60%를 넘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돕는다. 금감원은 증빙 판독 속도가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종전처럼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제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무효확인서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돼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활용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카카오페이·토스, 신분증 위변조 검증 강화

정부 시스템 연계해 진위 확인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23일부터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까지 포함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분증에 적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은행·증권·보험사처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도 검증한다. 네이버페이는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금융결제원을 거쳐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에 연계된다. 두 회사는 전자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뿐 아니라 사진정보를 포함한 신분증 진위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행안부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행안부는 전자금융업계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했고, 금융결제원은 기존 금융회사에 제공하던 진위확인 중계망을 카카오페이·토스와 연계했다. 금감원은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에서는 약 750만 건, 토스에서는 약 1000만 건의 비대면 고객확인이 이뤄졌다. /허정윤 기자

진승욱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동참

〈대신증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취약계층 보호

대신증권은 진승욱 대표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대표는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진 대표는 “금융은 고객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에 힘쓰고, 누구나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서민금융진흥원 주관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대신증권

제주 축산업 온도차… 한우 '수출고전'·흑돼지 '첨단도약'

르포
제주 한우·한돈 가공장

한우, 수입업자·소비자 반응 뜨거워
가격 경쟁력·짧은 유통기한 '발목'

흑돼지 공장, 로봇 기반 생산혁신


제주 소재 대한F&B 관계자들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서울 어느 갈빗집 불판 위 소고기. 종업원이 앞접시에 집게로 한 점 건넸다. 그걸 입에 문 손님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서양 사람으로, 한우 고기는 난생처음이라고 했다. 기자의 전직 회사 동료인 이 외국인은 한우 예찬론자가 됐다.

지난 19일 제주시 소재 소·돼지고기 가공장인 대한F&B를 찾았다. 싱가포르에 한우를 수출하는 업체다. 제주한우는 지난해 현지 당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했다.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게 주효했고 지난해 말 국내 타 지역산에 앞서 싱가포르 프리미엄시장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싱가포르에선 대략 K-비프로 소개됐는데 정식 명칭은 제주한우소고기(Jeju Hanwoo Beef)다. 어쨌든 수출 개시 직후 현지 수입업자·소비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문제는 4개 분기를 한 바퀴 돈 지금이다. 대한F&B 관계자는 수요가 줄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출 첫해, 인지도가 이미 상당한 일본산 와규의 아성에 맥을 못 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우의 경우 국내외 공급가가 들쭉날쭉한 탓에 와규 대비 소비자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한 데 더해 유통기한마저 경쟁 소고기 상품들에 비해 짧다.

대한F&B의 주인성 대표이사는 "한우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소비되는 와규보다 가격이 높아 업체나 소비자 모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단가 자체는 높지 않다. 공정 및 제반 비용 등을 반영한 가격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와규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 한우가 5%쯤 더 비싸다. 가격 저항을 불러온 요인이다. 호주·미국산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주 대표이사는 "미국이나 호주 등은 대량으로 사육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며 "반면 한우 가격은 주식처럼 크게 오르내려 해외시장에 자리 잡기 어렵다"고 전했다.

싱가포르가 소 한 마리 전체(모든 부위)를 수입하는 것도 아니다. 현지인들의 선호 부위는 등심·안심·채끝·부채살·갈빗살 등 기껏해야 5개 안팎이다. 동남아 타 국가로의 수출 확산에 앞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 대표이사의 견해다.

정부에는 유통기한 문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각지의 소고기를 수입한다. 호주산의 경우 냉장육 유통기한이 120일인 데 반해 한국산은 60일에 그친다. 출발선상에서부터 경쟁력이 약화한다. 대한F&B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90일 정도까지 늘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소통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지 사람들한테 제주도 한우는 다소 생소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에서의 홍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흑돼지의 명성은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자하다.

앞서 18일 방문한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도 제주산 돼지고기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내 도축장에서는 뼈를 정교하게 자르는 로봇과 세척을 담당하는 로봇 등이 작업에 한창이었다.

각 돼지 도체가 생산라인을 지날 때 로봇에 장착된 센서·카메라가 척추의 형태 등을 우선 파악한다. 로봇은 그 결과를 보고 절단 여부를 정한다. 로봇은, 척추가 휘었다고 판정할 시 자르지 않고 작업장 내 인부한테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세정 로봇은 도체에 묻은 이물질이나 뼛조각 등을 씻어 내고 있었다. 기존 기계식 세척은 자동 세차장처럼 돼지가 지나갈 때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물 절약에 효과적이다. 제주양돈농협의 김형준 센터장은 또 "물을 많이 사용하면 폐수도 많이 발생하고,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식 세척은 돼지 1마리당 물 약 26리터(ℓ), 사람이 닦으면 12ℓ가 들어간다. 로봇으로 세척하면 8ℓ면 된다"고 했다.

이 센터에선 땅속 300m 염기성화산암에 스며든 지하수를 길어다 쓴다. 이곳은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당국·지자체의 승인하에 세척용으로만 퍼 올리고 있다.

/제주=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김치 세계화·기술혁신 팔 걷어

글로벌 김치 비전 선포식

영양학적·기능적 가치 검증 강화
AI·푸드테크 기반 기업성장 지원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글로벌 김치 비전 선포식'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뉴욕에서 '김치의 새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7회 김치의 날'(11월22일)을 맞아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 '글로벌 김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김치의 날 제정 이후 해외에서 최초로 열린 공식 비전 선포식이다. 전 세계 미식과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을 필두로 김치의 글로벌 시장 전역 확산에 목적을 둔다.

농식품부는 우선 장 건강 및 면역 등 김치의 영양학적·기능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치의 맛과 품질을 높이는 우수 종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유통 환경에 맞춰 김치가 익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고도화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치 발효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 자동화와 품질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계약재배와 김치원료공급단지, 저장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에 따른 원료 수급 변동에 대응하고, 중소 김치기업의 기술 도입을 지원해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김치기업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각 지역·계절에 따라 이어져 온 200종 이상의 김치에 대해, 전통 제조지식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절차를 강화한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문화의 교육·체험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비건김치와 김치 가공품 등 현지 식문화에 맞는 제품과 김치 응용요리에 대한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현지 유통·외식업계와 협력해, 소비자가 가까운 매장·음식점에서 김치를 접하고 익숙한 메뉴와 함께 즐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욕 행사에는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상호 주뉴욕총영사,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 후니 킴 조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공사, LACP 어워드 '플래티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성 인정받아



부산항만공사(BPA)가 '2026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등급 '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심사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한다.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 및 공공기관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적인 대회다. 매년 500여 개 기업·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총 6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세계 6위에 올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공사는 해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GRI와 ESRS 등 국제 공시기준과 공공기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가이드라인(재정경제부 제정)을 충실히 반영했다. GRI는 기업·기관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공개하기 위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고, ESRS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다.

환경경영 추진실적을 비롯해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위한 노력, 반부패·청렴경영 등 주요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담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한 표지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주요 성과를 제시하는 등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였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사진)은 "3년 연속 플래티넘 수상은 부산항의 ESG 경영 노력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부산항 전반에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해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해외물류 인프라 확충 '잰걸음'

동유럽 센터 확보·블라인드 펀드 조성

해양수산부가 동유럽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행보를 넓힌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국내 물류기업 간 합작투자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이달 초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했다. 이어 이달 23일에는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배후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브로츠와프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34만 7417㎡(10만5000평), 연면적 16만4574㎡(5만 평) 규모의 최신 시설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확보했다. 인근에 국내 배터리 기업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어, 생산과 물류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리예카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1만7709㎡(5000평), 연면적 8919㎡(2700평) 규모로 건설된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내 중소 물류기업 간 투자 협약을 체결해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블라인드 펀드 1500억 원도 조성했다. 내년 상반기에도 15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14개소의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감독체계 강화

부정행위 예방 종합대책 마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1일 시행한 제2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국 33개 시험장·1만7000여 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전자기기 가방 보관, 스마트워치 착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6명 모두에 대해 시험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활용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백 이후 치러진 첫 국가자격시험이다.

공단은 각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일괄관리 ▲스마트기기 전담감독관(AI 인스펙터) 추가 배치 ▲부정행위 방지 가리개(앞치마) 착용 ▲무작위 전화 발신 등 다각적인 부정행위 예방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무작위로 응시생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했다. 벨소리가 울린 응시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아울러 AI 인스펙터가 전원이 켜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는 응시생을 적발됐다. 공단은 이들 역시 무효 처리하고 향후 응시도 제한할 방침이다.

공단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 가족, 무술만큼 웃음도 세다!

눈앞에서 터지는 리얼 액션,
쉴 틈 없이 꽂히는 코믹 펀치!



JUMP

2024. 10. 01 - OPEN RUN | 명보아트홀 B3 점프 전용극장

예매: NOL티켓, 티켓링크, 네이버 | 문의: 02-722-3995 | www.hijump.co.kr

2차 공공기관 이전 임박… 경북도, 핵심 기관 유치 총력전

농협중앙회·마사회 등 유치 경쟁
지역 산업 연계성 앞세워 승부수
이철우 지사, 국토부에 직접 건의
양 부지사도 기관 방문 설득 총력
정주 여건 개선·정치권 공조 강화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미나에서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경북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북도가 지역 주력산업과 시너지를 낼 핵심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 지휘부가 중앙부처와 이전 대상 기관을 직접 찾는 등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중점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가유산진흥원 등이다.

기관별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농협중앙회는 전남광주, 전북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전북 남원, 경기 이천, 제주, 경남 등 5개 광역·기초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인접한 대구시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기조와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핵심 논리로 내세워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책을 제시하며 기관 마음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 지휘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기관의 경북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지난 6월과 10월에는 유치 추진상황보고회와 결의대회를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 전략과 이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행정·경제부지사도 현장 행보에 힘을 보탰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과 정주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난 8월 한국마사회를 찾아 '벳츠런파크 영천' 중심의 말산업 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했으며, 도내 7개 시·군과 말산업 육성 공동협약도 체결했다.

정치권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지난 7~8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치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한민국 성평등·가족정책 허브 경북 조성'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기관 유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전통·첨단산업 기반과 우수한 교통·물류망을 갖춘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핵심 기관을 반드시 유치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국경 넘어 학생·교원 교육교류 활성화

경기도교육청, 재외한국학교와 협약
한국어 교육·교류 협력체계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이상철)와 재외국민 교육 및 한국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약 1만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재외국민 자녀의 한국어·역사·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경기도 학교와 재외한국학교 간 학생·교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재외한국학교 1대1 연계 교류 ▲한국어·역사·정체성 교육 협력 ▲교원 교류 및 역량 강화 ▲한국어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연수, 교육 콘텐츠 공유 등을 지원하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상철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장과 교육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대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교류 수요를 파악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왔다.

현재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이 재외한국학교와 교류를 추진 중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일본 건국한국학교, 안성교육지원청은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했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포항시, 4800억 투입해 특급호텔 조성

경북도·한화 등과 투자협약 체결

포항시가 북구 환호동에 총사업비 4800억원을 들여 385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추진한다. 착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포항시는 20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포항하나원㈜과 '환호지구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업부지는 환호동 일원 약 4만9000㎡다. 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민간자본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이 민간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대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있지만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의 숙박과 야간 소비가 경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환호공원과 스페이스워크, 영일만 해안 경관, 포스코 야경 등 관광자원에 숙박·휴양 기능을 더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소비가 인근 상권과 관광지로 이어지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와 연계해 국제회의와 산업전시회 방문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비즈니스 수요에 관광·휴양 기능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시설 운영 단계에서는 식음료·유통·시설관리와 호텔·관광서비스 분야의 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순창군, 노인일자리 3380개로 노후 활력

자원순환 특화사업으로 참여 확대

전북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대외적인 성과와 현장 호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순항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총 3380개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역 어르신들이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규칙적인 일상 유지와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성과 최신 환경 트렌드를 접목한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참여 폭을 넓혔다. 기존의 '시니어자원순환단' 운영에 더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다회용기 세척 공동체사업단 '청춘드림워싱' 등이 대표적이다.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자원 순환 가치를 확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의 만족도 역시 높다.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니 하루하루에 활력이 생긴다"며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같은 내실 있는 운영은 대외적인 기관 평가에서도 빛을 발했다. 순창군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순창(전북)=정봉철 기자 jbc6744@

전주시, 비빔밥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

2030년 등재 목표로 학술대회 개최

전주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이 세계인의 음식문화를 넘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가 오는 2030년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비빔밥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비빔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내학술대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비빔밥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향후 등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형문화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무형유산과 음식문화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빔밥의 역사성과 공동체적 전승 가치를 공유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비빔밥이 단순한 한 끼 음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 세대 간 전승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비빔밥 전승 사례를 살펴보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록화, 국내외 홍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주(전북)=김근호 기자 kmo2455@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겨울철 화재·안전사고 예방 총력

울산시는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31개 분야 9617건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와 소방본부, 5개 구·군은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화재 취약 시설과 노후 시설, 연말연시 행사장의 위험 요소를 살핀다. 영화관은 소방·전기설비와 비상구·피난통로, 전통시장은 전기·가스·소방설비와 화기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요양·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서는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피난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울산=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인천시
글로벌 반도체 기술협력 강화

인천시는 2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인하대학교, 인천반도체포럼 주관으로 '2026 인천 반도체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학·연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첨단 패키징 기술 발전 방향과 국제 공동연구 가능성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박경록 연구소장이 인천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고 AI 반도체 패키징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세미나에는 일본 도호쿠대, 삼성전자, 일본 DNP, 미국 시스코 전문가가 참여해 3D 집적과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 소재·열관리 기술을 공유했다.

/인천=이속영 기자 sy1321@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AI 말 영상 콘텐츠 14편 제작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지원한 '부산AI영화학교 2기 AI 콘텐츠 제작 워크숍' 교육생 20명이 말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 콘텐츠 14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영화의전당 비프힐 편집교육실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렸다. 20대 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생들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영상 기획과 제작, 편집 과정을 실습했다. 이를 통해 일반 영상 9편, 광고 3편, 뮤직비디오 2편 등 총 14편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취약가구 70세대 난방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동경주 지역 에너지 취약가구 70세대에 가구당 32만 원 상당의 난방유와 연탄을 지원한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해송을 통해 진행한다. 지원 물품은 11월 말까지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문무대왕면 와읍리의 에너지 취약 가정을 찾아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권원택 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빨간불' 보안조직 확대 등 재발방지 총력

신세계그룹, 보안조직 신설·격상
무신사,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대
쿠팡, 보안정책·대응체계 점검

컬리와 SSG닷컴, 무신사 29CM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유통기업들은 보안 조직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지난 17일 외부 공격자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인증정보를 탈취한 뒤 업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컬리는 이를 인지한 직후 긴급 차단하고 18일 관계기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신세계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에서도 이달 초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SG닷컴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개별 통지했다.

이번 사고는 외부 비인가자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취약점을 이용해 고객 정보에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고객 성명과 내부 식별용 고객번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SSG닷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무신사는 지난 9월 해킹 공격으로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이메일·휴대전화번호·배송정보 2만1011건 등 모두 16만여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유출 사실도 확인됐다. 무신사가 개인정보위에 추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주문정보 3만2262건과 리뷰정보 3999건이 유출됐다.

쿠팡과 GS리테일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서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도 GS샵과 GS25에서 각각 158만여명, 7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지난 8월 과징금 128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겪은 유통기업들은 보안 조직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SCK컴퍼니와 이마트24에 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하고, 이마트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기존 보안 조직을 센터급으로 격상했다.

무신사는 정보보호 전담 조직인 IT 시큐리티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022년 4.6명에서 지난해 9.8명으로 늘었다.

쿠팡은 지난 9월 정보보호·법률·경영·IT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보안 정책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기업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잠실 롯데월드몰 '마샬' 팝업스토어. /롯데쇼핑

롯데百, 국내최초 마샬 팝업스토어 운영

할인 판매·굿즈 증정 등 프로모션

롯데백화점이 영국 오디오 브랜드 '마샬(Marshall)'의 팝업스토어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성을 살린 소품 하나로 집 안에 변화를 주는 '핀셋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오디오가 새로운 인테리어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오디오테리어' 트렌드에 힘입어 올해 1~10월 롯데백화점의 오디오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2층에서 마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팝업에서는 스피커를 비롯해 헤드폰, 이어폰, TV 사운드바, 파티 스피커 등 마샬의 전 제품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장에는 청음존을 조성해 고객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직접 들어보고 음질과 특성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 팝업 단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 품목을 5% 할인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토트백, 키링, 티코스터 등 브랜드 굿즈를 증정한다.

잠실 롯데월드몰 행사를 마친 뒤에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팝업스토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쿠팡, 전북 지역 우수기업 판로 확대

'LOSO 페스티벌 in 전북' 성료

쿠팡이 전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우수기업 품평회를 개최했다.

쿠팡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다목적 광장 일원에서 열린 'LOSO 페스티벌 in 전북'에서 '전북 지역 우수기업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고 지역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LOSO는 지역 소상공인을 뜻하는 'Local Small Owners'의 약자다. 'LOSO 페스티벌 in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시민 참여형 지역 축제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쿠팡은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20일 품평회를 운영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전주·익산·군산·남원·진안·부안 등 전북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47개사가 참여했다. 김치·젓갈·장류·누룽지·부각·전통주 등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생활용품,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선보였다.

쿠팡의 리테일·로켓그로스 브랜드 매니저(BM)와 마케팅 전문가 등도 참여해 기업별 상품 경쟁력과 온라인 판매 적합성을 살펴보고 상품 전략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품평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상품의 쿠팡 입점을 지원하고 후속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맥심 모카골드 37주년… 맛 더하고 취향 담았다

동서식품 국내 커피믹스 시장 1위
최근 1년간 스틱기준 약 53억개 판매

올해로 출시 37주년을 맞은 맥심 모카골드는 최근 1년간 스틱 기준 약 53억개가 판매되며 국내 대표 커피믹스 브랜드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온 맥심 모카골드는 현재까지 국내 커피믹스 시장 1위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듬어온 맛과 향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해온 브랜드 활동 역시 맥심 모카골드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배경으로 꼽힌다.

맥심 모카골드는 1989년 처음 선보였다. 1976년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출시한 동서식품은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취향을 꾸준히 연구하며 제품 혁신을 이어왔고, 그 결과 더욱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갖춘 맥심 모카골드를 탄생시켰다.

동서식품은 원두 선정부터 로스팅, 추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축적한 커피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선한 원두와 다양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최적의 배합을 찾아냈으며, 맥심 모카골드만의 '황금 비율'을 완성했다.



동서식품 '컬러 오브 맥심'

동서식품은 전년도에 이어 '행복에도 컬러가 있다면'이라는 콘셉트로 '컬러 오브 맥심'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였다. 맥심의 대표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 맥심 화이트골드, 맥심 슈프림골드를 각각의 시그니처 컬러인 노랑, 아이보리, 주황을 활용해 제품별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종이컵 사용하는 각자의 방식을 재치있게 풀어낸 'MCTI(Maxim Cup Type Indicator) 컵 시즌 2' 굿즈도 전년에 이어 선보였다. 이외에도 '카카오프렌즈',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니언즈', '카카오프렌즈 춘식이', '잔망루피' 등과 협업한 한정판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브랜드에 새로운 이미지를 더하고 MZ세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맥심 모카골드가 30년 넘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커피에 대한 기술력과 함께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을 전하고자 한 진정성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맛과 향에 집중한 제품 개발과 더불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S리테일, 196.5만달러 규모 수출상담

베트남서 '해외시장개척단' 행사

GS리테일이 중소 협력사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196만5000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GS리테일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제14회 해외시장개척단'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GS샵의 뷰티·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 협력사 10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 바이어 14개사와 총 78건, 약 196만5000달러(약 26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전체 상담 78건 중 38건에서 실제 계약 및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졌다. 상품 개발 및 공급 방안을 논의한 상담도 22건에 달하는 등 참가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GS리테일은 수출상담 외에도 참가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KOTRA 호찌민 무역관과 현지 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고 베트남 소비시장 동향과 주요 유통채널,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을 공유했다.

GS샵 해외시장개척단은 2015년부터 국내 중소 협력사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임금체불 지속… 경영 정상화 '안갯속'

노조, 더불어민주당과 대화 나서

홈플러스가 3개월 급여가 체불된 가운데, 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선다.

홈플러스 노조는 23일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의원과 사전 면담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다음 날인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8월분 급여 입금을 완료했다. 홈플러스는 네 차례에 걸쳐 급여를 입금했다. 현재 9, 10, 11월분 급여와 명절 상여금이 체불된 상태다.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 앞에 정부와 여당의 개입을 촉구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홈플러스 사태 책임자 MBK 김병주를 구속하라', '국회는 투기자본 규제법 연내 입법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1인 시위도 나섰다. 안수용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은 매일 아침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

韓·中 훈풍에 K-뷰티 기지개… 보따리상 대신 현지화 공략

아모레, 전용 제품·왕홍 마케팅
LG생건, '더후' 프리미엄 강화
달바, 핵심 매장·온라인 집중



'려' 자양윤모 퍼퓸 서울선셋 중국 제품군. /아모레퍼시픽

한중 양국 간 관계 개선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다시 중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되는 등 양국 교류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입에 따른 인바운드 매출 확대와 대중국 수출 반등이 맞물리며 화장품 업황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과거 보따리상 중심의 공식은 자취를 감췄다. K뷰티 기업들은 철저한 채널 효율화, 온라인 직진출, 현지 맞춤형 신제품과 전략적 합종연횡으로 '대륙 재공략'의 해법을 새로 쓴다.

2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전통 뷰티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 다변화에 주력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중화권 매출은 1분기 1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1245억원, 3분기 1044억원 등을 기록했다.

중화권 사업의 외형 축소를 감수하면서도 사업 체질은 개선했다. 비효율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는 대신 채널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두피관리 브랜드 려는 회원제 창고형 매장 샘스클럽 전용 제품으로 샴푸 부문 1위에 올랐다. 주력 제품 '자양윤모 퍼퓸' 판매가 호실적을 견인하자 신제품 '서울 선셋 오일' 등을 지속 출시해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중국 왕홍 초청 행사, 글로벌 앰배서더 공승연 콘텐츠에 힘입어 현지 뷰티 시장에 안착했다.

LG생활건강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4699억원의 누적 매출을 냈다. 중국 의존도는 낮추는 반면 럭셔리 브랜드 '더후'의 프리미엄 위상 제고에는 집중하고 있다. 최고급 제품군인 '환유 레드 에디션'의 중국 한정판을 출시하거나 신제품 '3세대 천기단'을 중국 최대 온라인몰 티몰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상장 2년 차를 맞은 신흥 뷰티 달바글로벌은 가파른 외형 성장을 앞세워 중화권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달바글로벌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5137억원, 영업이익 1258억원을 올렸다.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015억원을 넘겼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은 75%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3분기 중화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4% 급증했다. 숏폼 플랫폼 더우인과 티몰 매출이 각각 203%, 98% 뛰며 온라인 채널 전체가 148% 성장한 데다, 오프라인에서도 저효율 매장을 솎아내고 핵심 점포 847곳 중심으로 재고를 집중 배분하며 온·오프라인 쌍끌이 성장을 이뤄냈다.

인디 브랜드 진영은 플랫폼과 브랜드가 협업해 중국 시장의 문턱을 넘고 있다.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화해글로벌은 올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취안루 코리아타운에 341㎡ 규모의 첫 오프라인 단독 매장 '화해'를 열고 18개 K뷰티 브랜드의 300여 개 제품을 내놨다. 해당 매장은 개점 초기 일평균 방문객 2000명, 일평균 판매량 300개 이상을 확보하며 현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글로벌 거점은 개별 인디 브랜드 성공과 직결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매출 1014억원으로 분기 매출 1000억원대에 처음 진입한 스킨케어 브랜드 '토리든'은 전체 매출의 9.9% 수준을 중국에서 거둬들이며 핵심 시장으로 키워냈다. 토리든은 상하이 '화해' 1호점에서 약 4개월간 운영한 팝업 행사에서 입점 한국 브랜드 중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뷰티매터 ASIA 15 2026'에도 선정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회복됨은 물론 외국인 소비 심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며 "과거와 달리 브랜드 제품력, 현지 플랫폼, 데이터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중화권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GC녹십자, 독자 RNA·LNP 기술 확보

차세대 항암 치료제 정조준
원형 RNA 효율 90% 달성

GC녹십자가 차세대 RNA 설계 기술과 약물 전달체 플랫폼을 모두 자체 기술로 확보하며 기항암제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질나노입자(LNP)를 활용한 체내 직접 투여 방식의 '인 비보 카티(in vivo CAR-T)'와 '암 백신' 개발에서 전임상 효능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상업화 및 기술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GC녹십자는 지난 10~12일 인천에서 열린 '제2회 세계 RNA 기반 치료제 및 백신 서밋'에서 독자 RNA 기술 및 LNP 플랫폼 연구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존 선형 mRNA 한계를 보완한 원형 RNA 기술을 공개했다. 세포 내 단백질 합성 기관이 원형 고리를 따라 작동하면서 단백질 발현 효율을 개선하는 기전이다.

발표에 나선 GC녹십자 정재성 RNA Science 팀장은 "변형된 리보자임을 활용하는 '이종 리보자임' 기술을 자체 개발해 원형화 고유 기술을 확보했다"며 "선형 RNA 양 끝에 배치된 비활성 리보자임이 정확히 맞물릴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해 90% 이상의 높은 원형화 효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체외 CAR-T 모델에 적용해 사람 T세포에 도입한 결과, 투여 6일 후 선형 mRNA는 발현이 급감한 반면, 원형 RNA는 약 50%의 CAR 발현율을 유지했다. 표적 B세포 고갈(제거) 효과 역시 약 10배 개선됐다.

다음으로는 세포 내 자가증폭 mRNA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세포 내 자가복제를 통해 단백질 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조절 부위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 저용량 투여 가능성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 글로벌 벤치마크 대비 약 3배 높은 발현량을 기록했다.

약물 전달체 분야에서는 인 비보 CAR-T와 암 백신 적용 성과를 알렸다. 간으로 가는 비특이적 전달을 줄이고 비장 선택성을 높인 자체 표적 LNP(tLNP)는 동물모델과 인간화 마우스 모델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비교군 대비 혈액 및 비장 내 인간 CD8+ T세포 전달 효율과 B세포 제거 효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위를 보였다.

암 백신용 자체 LNP 'GC01' 역시 흑색종 동물모델에서 모더나 LNP 대비 우수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종양 내 T세포 침윤과 암세포 살상 활성을 높이는 동시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탈진 T세포를 줄여 종양 미세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결과다. GC01은 이미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을 통해 인체 안전성과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기반까지 검증받은 플랫폼으로 GC녹십자는 향후 항암 백신 임상 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HLB펩, 스킨메드 신약 원료 연속 수주

"상업화 직결 파트너십 기반 다져"

HLB펩이 고객사의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임상 1상에 이어 임상 2상용 원료의 약품까지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원료의약품 제조와 함께 임상승인 심사에 필요한 허가 서류 작성과 규제 대응까지 일괄 수행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상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장기 파트너십 기반을 다졌다.

펩타이드 전문기업 HLB펩은 피부생명과학 전문기업 스킨메드와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 'SMD-101(성분명: 아리포타이드)'의 임상 2상용 원료의약품 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리포타이드는 스킨메드가 국소근육이완 치료 영역을 겨냥해 개발 중인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이다. 앞서 지난 5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당시 HLB펩은 임상 1상용 원료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후속 임상 단계의 원료 공급까지 연이어 맡게 됐다.

임상 2상용 원료는 기존 1상과 동일한 제조공정을 적용해 HLB펩의 핵심 생산 거점인 오송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공장에서 생산된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 단계가 올라갈 때 동일 공정을 유지해 원료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이번 계약에 따라 HLB펩은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분석법 밸리데이션, 장기 안정성시험, 가혹시험 등을 수행한다. 또 식약처 제출용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원료의약품 파트를 작성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보완 요청에도 대응한다. /이청하 기자

발을씻자, 겨울 한정판 '딸기향' 출시

LG생건, 1세대 대비 거품 1.5배 풍성

겨울철 두꺼운 양말 속 발 관리에 달콤한 향이 더해진다. LG생활건강의 바디케어 브랜드 온더바디가 발을씻자 한정판 '딸기향'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여름 한정판으로 선보인 '수박향'이 조기 완판 행진을 기록하자, 온더바디는 겨울 후속작으로 고당도 생딸기 과즙을 담은 듯한 제품을 기획했다. 사전 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씻을 때마다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향이 퍼져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신제품에는 올해 3월 재단장한 '발을씻자 2세대'의 핵심 기술력을 그대로 적용했다. 기존 1세대 대비 1.5배 더 풍성하고 쫀쫀해진 미세 거품을 갖췄다. 발 위에 정확하게 분사할 수 있는 스프레이로 설계해 편의성도 높였다. 또 소취 성분, 체취 마스킹 특허 향료, 풋 수딩 콤플렉스 4만 ppm 등을 처방해 발냄새와 발냄새 원인균을 99.9% 제거해 준다.

발을씻자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뿌리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으로 '국민 풋샴푸'라 불리며 누적 판매량 3000만 개를 돌파한 제품이다.


온더바디 '코튼풋 발을씻자 풋샴푸 딸기향'.

2018년 처음 공개된 후 풋샴푸라는 새로운 생활용품 카테고리를 개척하며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청하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英 부츠에 제품 16종 입점

유럽 웰니스 시장 공략

콜마비앤에이치가 영국 최대 헬스앤뷰티(H&B) 유통사 부츠를 통해 유럽 웰니스 시장을 공략한다. '케이(K)-웰니스' 제형 경쟁력을 입증하며 향후 품목 추가, 해외 제조개발생산(ODM) 수주 확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영국 H&B 부츠에 웰니스 제품 총 16종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영국 전역의 부츠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 입점해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다. 콜라겐·히알루론산·레티놀 등 이너뷰티 제품부터 식이섬유·올리브오일·홍삼 등을 활용한 제품까지 다양하다.

해당 제품 모두 현지 소비자 취향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 주력 제품인 '하비X케이 웰니스' 콜라겐 젤리, 식이섬유 젤리 등은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막대형으로 설계했다. 저분자 콜라겐에 비타민C, 비오틴 등을 배합하고 자두, 패션프루트, 청포도 등 맛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K팝 팝핑 셔벗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제형을 갖췄다. 장 건강,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등 기능별 3종으로 구성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글로벌 대형 유통사와 직접 협업하며 해외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츠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우리 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홍보대사
탁재훈

홍보대사
김나희

※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IPARK현대산업개발,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온정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겨울철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용산구와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증품을 전달하고, 연말까지 지역별 수요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



덕성여대, 학생 AI 역량 진단·인증체계 구축

덕성여자대학교가 인공지능(AI) 역량평가 기업 코드프레소와 손잡고 학생들의 AI 역량을 진단·인증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덕성여대는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에서 코드프레소와 산학협력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AI 역량 진단·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한편,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 인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사이버대, 인도 대학과 통합건강 교육협력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인도의 요가 특성화 대학과 손잡고 요가와 명상, 전통 의학 등 통합건강 분야 교육 교류를 추진한다.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13일 인도 벵갈루루의 S-VYASA 대학과 국제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S-VYASA는 전통 요가를 현대 과학과 접목해 교육·연구하는 대학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명대

독일과 게임 산업·교육 교류

상명대학교가 독일 게임 산업 사절단을 초청해 교류 행사를 열고, 국내외 게임 산업 및 교육 현안을 살폈다. 상명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에서 독일 게임 산업 사절단과 한·독 게임 산업 및 교육 분야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카를스루에 게임허브 대표, 바덴뷔르템베르크 인터내셔널 디렉터, 주한독일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독일 게임 기업 및 기관 소속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상명대 SW융합학부 게임 전공 학생들도 참여해 방문단과 교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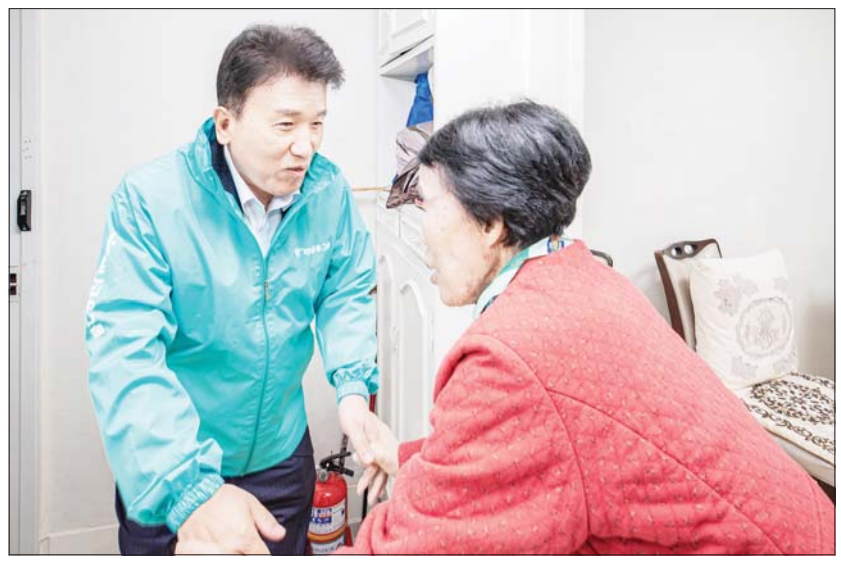
/김수정 기자 kcrystal@

인 사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한민족센터 본부장 김병수 △편집총국장 직무대행(편집국장 직무대행 겸임) 강영두 ◇부실장·부국장·부본부장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겸임) 이동칠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영상미디어부장 겸임) 최윤정

부 음 ▲김달환씨 별세, 김관숙·승기(MK스포츠 대표이사)·관순·승진(MK스포츠 이사)씨 부친상, 신상태·주경천씨 장인상, 박혜란씨 시부상=22일 오전 4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대구 도림사추모공원. 02-2290-9457.

하나금융, 어르신 1000명에 온정… 안전한 노후 뒷받침

독거·거동 불편 어르신 각 500명 대상
주거 안전용품·보행보조기 맞춤 제공
함영주 회장, 가정 방문해 온정 전달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 함영주 회장(왼쪽)이 어르신의 주거환경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안전용품과 보행보조기를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거 안전용품 및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거 어르신 500명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부터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각 가정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 안전용품을 설치했다. 또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이불과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살폈다.

함 회장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룹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독거 어르신 500명에게 미끄럼 방지매트, 이동식 손잡이, 화장실 안전손잡이, LED 센서등, 화재감지기, 가정용 소화기, 자동소화 멀티탭 등을 지원한다. 주택 구조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낙상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0명에게는 안전보행기를 제공한다. 보행보조기 사용법과 안전 보행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신체기능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이후에는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물품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과 의료 소외지역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팜젠사이언스, ESG 4회 연속 투자적격

서스틴베스트 하반기 평가 A등급

팜젠사이언스가 지배구조, 인적자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반에서 체질 개선을 이뤄 4개 반기 연속 '투자적격'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팜젠사이언스는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6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하반기 국내 1328개 기업을 총 7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고 등급은 AA, 최저 등급은 E인 가운데, A등급은 '투자적격' 등급으로 전체 기업 중 28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팜젠사이언스는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섹터에 속하며 환경 부문 '혁신 활동'과 사회 부문 '인적자원 관리'에서 동일 섹터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의 보수', '관계사 위험', 'ESG경영 인프라' 등 주요 지표에서 섹터 평균치를 웃돌며 경영 투명성을 입증했다.

팜젠사이언스는 자본시장 내 기업 신뢰도를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좋은 기업을 넘어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취약아동 1004명에 체험 선물

아동 권리의 날 맞아 행사 개최

애경산업이 '세계 아동 권리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1004명에게 차별 없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인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앞장섰다.

애경산업은 지난 20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대형 키즈카페 점핑몬스터에서 광명시청, 광명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보듬봉사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일대 지역아동센터 30개 곳 소속 어린이와 인솔자 등 총 1004명이 참가했다. 평소 여가 생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애경산업은 아동센터별 형평성을 고려해 참여 기회를 고르게 배분했다.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어린이가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애경산업이 11월 20일 세계 아동 권리의 날을 맞아 행복 키즈카페 나들이 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애경산업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가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아동 권리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차별 금지·아동 최선의 이익·생존과 발달의 권리·아동 의견 존중을 4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청하 기자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6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 교구를 제작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삼표그룹, 창립 74주년 장벽 없는 나눔

이동약자 시설 접근정보 수집
시각장애아동 점자 교구 제작

삼표그룹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일상 속 장벽을 낮추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22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위해 이동약자를 위한 지도 만들기 활동 '계단뿌셔 챌린지'와 시각장애아동의 학습을 돕는 '점자 교구 제작' 활동을 펼쳤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계단뿌셔 챌린지에는 삼표그룹 임직원을 비롯해 성동구 직장인 자원봉사자, 청년봉사단체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집이나 회사 근처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을 찾아 계단·경사로·문턱 정보를 확인한 뒤 비영리 스타트업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했다.

수집한 500여 곳의 정보는 휠체어 및 영유아 동반 유모차 이용자, 보행보조기를 쓰는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방문 전에 시설 접근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삼표그룹은 참여 인원에 맞춰 성동구 관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한진, 상생 물류·주주친화 경영 성과

ESG 평가 4년 연속 통합 A등급

한진이 ESG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대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ESG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진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하는 '2026년 ESG 평가'에서 환경(E) 부문 A등급, 사회(S) 부문 A+등급, 지배구조(G) 부문 A등급을 받아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은 이번 평가에서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가운데,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부문은 전년 A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전 부문 중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고, 지배구조 부문 역시 전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는 환경 보전과 상생 경영, 주주친화 정책 등 E·S·G 전 영역에 걸친 균형 있는 실천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사회 분야에선 소상공인과의 상생 물류 지원이 주효했다. 한진은 소상공인 맞춤형 물류 플랫폼 '원클릭 택배 서비스' 운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택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임차인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



김 대 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따능AI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그 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원상에 회복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상회복의 무이다. 이때 원상회복이 필요한지 여부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대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노후화나 가치의 감소를 '통상의 손모'라고 한다.

임대차목적물의 노후화 정도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특별히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상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의 손모로 보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햇빛에 바래어 변색된 벽지와 마루, 가구의 하중으로 눌린 장판 자국, 냉장고나 텔레비전 뒤편 벽면에 생긴 거뭇한 자국, 액자를 걸기 위해 박은 몇 개의 못 자국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한 도배와 장판,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한 보일러나 수도꼭지, 창틀의 고무 패킹 역시 마찬가지다. 설비의 노후는 오히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영역에 가깝다.

반대로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은 다음과 같다. 원목마루의 훼손, 실내 흡연으로 벽지와 천장에 배어든 착색과 냄새, 반려동물이 긁어 놓은 바닥과 문틀, 환기와 청소를 하지 않아 번진 곰팡이와 기름때가 전형적이다. 에어컨이나 선반을 달기 위해 벽면에 구멍을 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을 허물거나 붙박이 가구를 철거한 경우, 물건을 떨어뜨려 세면대나 유리를 깨뜨린 경우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한다.

다만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곰팡이가 그러한데, 건물 자체의 단열이나 방수 불량에서 비롯된 결로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문제인 반면, 통상적인 환기만 했더라도 생기지 않았을 정도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평가된다. 못 자국 또한 액자 몇 개를 건 흔적인지, 벽체가 손상될 만큼 다수의 구멍을 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결국 개수와 정도의 문제이다.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에어컨 배관 등을 이유로 벽체에 구멍을 내는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훼손된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금액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하고, 그 산정이 정당하다는 점은 이를 공제하려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해를 사용한 벽지를 새로 도배하는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물릴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통상의 손모는 결국 임대차 개시시와 종료시의 상태를 비교해야 명확히 그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가 종료되고 새로 개시되는 시점에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메리 크리스마스



기자 수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크리스마스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곳곳의 나무들이 전구를 촘촘히 두르고 백화점은 11월 초부터 화려한 크리스마스 외벽 장식을 공개했다. 일 년 중 두어 달, 짧은 시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백화점 업계가 크리스마스 장식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이커머스에 맞서 '특별한 경험'을 무기로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은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집객 수단이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1~12월 매출과 방문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본점 매출은 20%, 현대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연출 공간 방문객은 14.2% 늘었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이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과 영상 뒤에는 전력 소비와 탄소배출이라는 환경적 비용도 있다. 건물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만드는 미디어 파사드는 운영에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빛공해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에 실린 연구는 미디어 파사드가 도시의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광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고효율 LED 도입과 밝기 조절, 태양광 활용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주는 즐거움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백화점 외벽은 무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에 활기를 더한다. 다만 장식이 화려해질수록 그에 따르는 환경적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과거 미디어 파사드 규모를 전년보다 1.5배 키우면서도 전력 사용량은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밝힌 바 있다. LED 조명과 영상 연출 방식을 개선하고, 장식 구조물도 재사용 가능한 조립식 철제 프레임으로 바꿨다. 화려함과 에너지 절감이 반드시 충돌하는 목표는 아니라는 사례다.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 즐기려면 이를 만드는 과정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려는 유통기업들의 경쟁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배출 절감 노력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 (음 10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자신의 것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0년생** 말로 인한 실수가 우려됩니다. **72년생** 불안한 미래를 미리 대비하세요. **84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9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이성과의 다툼의 조짐이 있습니다. **73년생** 말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5년생** 상대는 귀하보다 한수위 입니다.

50년생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2년생** 여행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떠나세요. **74년생** 오늘 겁 모르고 행동하면 길하지 못합니다. **86년생** 아랫사람을 대우해 주세요.

51년생 상대방을 헐뜯게 되는 실수를 하지마세요. **63년생** 작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75년생** 경거망동을 삼가하세요. **87년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52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닙니다. **64년생**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88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53년생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5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77년생** 빠른 시일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89년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건 친구 밖에 없습니다.

54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66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78년생** 기분 좋은 날입니다. **9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세요.

55년생 좋은 운은 늘 오지 않습니다. **67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깊게 생각해야합니다. **79년생** 일진이 좋지 않으니 괴이한 곳에 가지마세요. **91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

56년생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68년생**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80년생** 비밀 누설로 인해 고생 합니다 다. **92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81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93년생**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58년생 언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70년생** 수단과 방법을 지금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82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94년생** 오늘만은 즐겁게 지내도록 하세요.

59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71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83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95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김상회의 四季

놀이와 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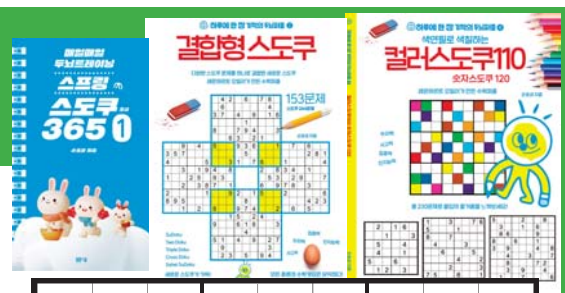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친구들과 재미로 화투를 쳤는데, 이것도 도박죄로 처벌받느냐는 것이다. 재미로 하는 놀이와 법에서 금지하는 도박은 어떻게 다른가. 돈이 오가면 무조건 도박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법에서 말하는 도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투를 쳤다고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적거나 친한 사람끼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도박이라고 하면 흔히 큰돈을 걸고 하는 게임을 떠올린다. 카지노에서 하는 게임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처럼 돈을 잃거나 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반면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것은 대부분 오락이나 놀이로 생각한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르다. 장소나 게임의 이름만으로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었는지,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지, 전체적인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등이다. 형법은 도박을 처벌할 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시 오락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법에는 '1인당 얼마 이하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식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금액이라도 참여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모임의 성격, 도박이 진행된 시간, 돈을 거는 방식 등에 따라 법의 평가는 달라진다. 따라서 금액만으로 도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친구끼리 점수만 기록하면서 고스톱을 쳤다고 하자.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작다. 형법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친구들과 화투를 즐기면서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걸지 않고 점수만으로 즐기는 것이다. 금전이 오가지 않으면 도박죄의 성립 문제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8		2	1
				2	1	4		9
	8			6		5		
			2					
	5						6	
					9			
		5		9			3	
6		1	3	5				
4	3		1				5	6

					3		6	
3		4	2			7		
	7			1	5		9	
6		1					8	
		2				9		
	3					6		1
	5		9	3			7	
		7			4	2		6
	6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첫 입주 앞둔 3기 신도시… 교통·입주 지연에 당첨자 '진땀'

3기 신도시 8년만에 내달 입주 시작
광역교통사업 89개 중 77개 지연
남양주·창릉 등 입주 일정 밀려
잔금 일정, 사업비 증가 등 차질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GTX-A 창릉역(가칭) 공사 현장. /성채리 기자

다음 달 인천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 2018년 첫 사업 발표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 구축과 입주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청약 당첨자는 교통편을 기다리는 한편, 바뀐 입주일에 맞춰 전·월세 계약 만기나 분양 잔금 납부도 다시 맞춰야 한다.

22일 최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연말까지 고양창릉 약 1100가구, 부천대장 약 500가구, 남양주왕숙 약 400가구가 추가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첫 입주 단지인 인천계양 A2·A3블록은 총 1285가구 규모다. 지난달부터 지구 내 정류장과 공항철도·인천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까지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입주가 시작되는 다음 달 말에 셔틀버스 3개 노선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광역교통시설은 입주 이후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서울 접근성을 체감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교통시설의 준공은 곳곳에서 밀렸다. LH의 지난 9월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89개 사업 중 77개의 준공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과 부천대장의 대장홍대선은 2031년, 남양주 왕숙의 강동하남남양주선과 하남교산의 송파하남선은 2032년 개통이 목표다.

주택건설 사업과 입주도 지연됐다.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고시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 A-6블록(510가구)의 사업 종료 시점은 21개월 늦어진 2030년 1월로, A-7블록(553가구)은 16개월 늦어진 2030년 2월로 각각 바뀌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공사 일수 등이 다시 산정되면서다.

문제는 입주 일정이 밀릴 경우 당첨자의 전·월세 계약과 자금 계획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고양창릉 S4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2029년 2월 입주를 예고했으나 본청약 공고에선 2030년 3월로 13개월 늦췄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 전월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증액이나 추가 월세, 이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분양 잔금을 낼 계획이라면 보증금 반환일과 잔금 납부일도 다시 맞춰야 한다.

늘어난 사업비도 청약자의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왕숙2 A-3블록은 사업 기간이 26개월 연장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333억원에서 4867억원으로 늘었다. 사업비 증가로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보다 오르면, 당첨자는 계약금과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시설 준공률은 주택 입주율보다 20%포인트 앞서도록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이주·철거 단계에서 일정이 밀린 사업장은 보상과 퇴거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에 따라 후속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이번주 6295가구 청약… 물량 3.7배 늘어

분양 캘린더

수도권 2904가구, 지방 3391가구
서울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 등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6295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지난주보다 물량이 약 3.7배 늘었다.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에서 2904가구, 지방에서는 3391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가 218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9층, 3개 동, 전용면적 84㎡ 총 218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1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기 편리하고,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경기 부천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공공분양 548가구와 안산 '아르뮤제자이' 984가구, 서울 종로구 '경희궁 에피트' 134가구도 청약에 나선다. 경기 시흥 '시흥 거모 아테라 신혼희망타운' 356가구도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구 '호반써밋 초량' 236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4층, 5개 동, 총 43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70·84㎡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이 도보권에 있고 KTX 부산역도 가깝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와 인접해 있으며 학교와 시장·대형마트 등 생활시설이 주변에 있다.

전북 익산시 '두산위브 트레지움 익산', 경북 '구미 파크원 데시앙', 울산 '화정1지구 아르엘', 충남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고양시 행신동의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과 전북 고창군 일원에 조성되는 '고창 데시앙' 등 6곳이 문을 연다.

/성채리 기자

강남 첫 재초환 부담금 눈앞… 조합 집단반발

내달 반포현대 재초환 179억 부과
서울 재건축 52개 단지 2.4조 예정
82개 재건축 조합, 폐지 집회 추진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연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과 대상 단지의 조합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52곳의 예상 부담금이 약 2조355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발의돼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서초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때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면 2018년 재초환 재시행 이후 강남권 첫 부과 사례가 된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사전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대다.

사전통지액 179억원에는 장기보유 감경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조합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의 10~70%를 감경받는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종 부담금 결정 전까지 반영되도록 검토 예정"이라며 "정확한 감경 금액은 각 조합원별로 제출된 1세대 1주택 증빙서류를 검토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52곳이다. 예상 부담금은 총 약 2조3550억원으로, 전체 조합원 2만94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이다. 단지별로는 서초구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한강맨션(4723억원)과 영등포구 신길10단지(1605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가 가시화하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도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연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담금 부과를 맡은 서초구도 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구는 지난 19일 국토부가 부과 시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자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들은 주택을 팔기 전에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진 기자 l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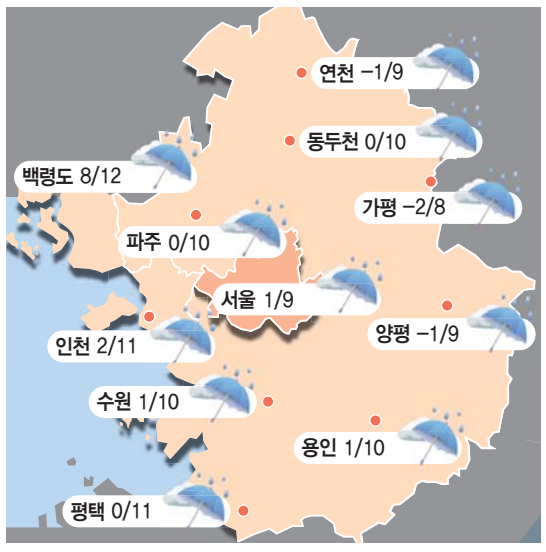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0 | 해짐 / 17:17

11월
23일(月)
음력 : 10월 15일

수도권 날씨
1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종로 옥인동 139억 투입… 편의시설 확충

휴먼타운 2.0 도시재생 사업 가결
공영주차장·돌봄시설 등 4곳 조성

재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노후 주거지가 기존 골목과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정비된다. 건축규제 완화로 개별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이어 공영주차장과 어린이 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에도 139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휴먼타운 2.0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옥인동 47 일대 3만 282.5㎡다. 지난 10월 1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50일 만에 생활기반시설 조성계획까지 심의를 통과하면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029년까지 국비 55억8000만원과 지방비 83억7000만원 등 총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과 어린이 키즈센터, 노인복지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9면을 확보한다. 시설이 조성되면 세대당 주차면수는 현재 0.56대에서 0.72대로 약 29% 증가할 전망이다.

옥인동 일대는 인왕산 자락의 경사지에 자리한 노후 저층주거지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대신 기존 주거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개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어머니가 당신을 낙태했어야"…젠슨 황, 직원들에 상습적 폭언 의혹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북미 회담 무산…"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때문" /사진 뉴시스
▲佛 주말 시위 6주째 계속…참가 인원 55만 → 8만명 지속 감소
▲네타냐후 당, 연정참여 조건으로 가자· 레바논 등의 완충지대 유지 요구
▲김치 요리가 일본풍?…네덜란드 미술관 식당, 결국 메뉴 정정
▲트럼프 "이란 핵무기 보유 막을 영구 합의 원해"…협상 재개 모색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0호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빨간불

L1

韓·中 훈풍에 K-뷰티 기지개 현지화 공략

L2



"예측할 수 없는 회화의 매력… 일상의 작은 장면 담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여 주 용 작가

"그림을 그릴 때면 결과를 알 수 없는 랜덤박스를 앞에 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주용 작가는 회화의 매력을 이같이 표현했다. 미리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감이 흘러내리거나 번지면서 만들어진 무늬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 그림을 완성한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작업을 이어가는 즐거움이다.

여 작가는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있다"며 "완성된 그림을 향해 가기보다 작업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에 따라 그림을 만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몽펠리에 미술대학(MO.CO. ESBA)에서 학사 과정을 공부하며 영상과 사진, 오브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경험했다. 여러 시도 끝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로 회화를 선택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광명시 갤러리 광명에서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를 개최하며 그동안의 작업을 선보였다.







1 여주용 작가가 경기 광명시 갤러리 광명에서 열린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에서 자신의 작품 '구렁이' 앞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기 광명시 갤러리 광명에서 열린 여주용 작가의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 전경.
3 여주용 작가의 작품 '문턱'. /여주용 작가

프랑스 유학 시절 회화에 매력 느껴
어머니에게 들은 태몽, 작품으로 표현
예상하지 못한 무늬·색에서 영감 찾아
아크릴물감·오일파스텔로 작품 완성

과거의 기억과 감정 새로운 작품으로
프랑스서 그린 작품에 새 형태 덧입혀
첫 개인전서 설명 없이 자유 해석 유도
일상 속 사소한 장면 꾸준히 기록할 것

◆프랑스 유학서 회화의 길로…태몽에서 얻은 영감

여 작가는 프랑스 유학 시절 다양한 미술 분야를 접하며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집중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순간의 움직임과 시간이 작품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회화에 매력을 느꼈다.

그는 "여러 매체를 시도하면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물감이 번지고 붓이 지나간 자국들이 쌓여 하나의 그림이 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여 작가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뱀이다. 뱀이 몸을 구부리거나 움직이는 모습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의 출발점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태몽이다.

어머니가 들려준 태몽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등장한다. 구렁이가 허벅지 안쪽을 물었고, 놀라 바닥을 내려다보니 수많은 뱀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여 작가는 "직접 경험한 꿈이 아닌데도 실제 기억처럼 남아 있었다"며 "제가 본 장면인지,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래 기억에 남은 이야기는 그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뱀의 모습뿐 아니라 몸을 구부리고 뒤엉키는 움직임도 그림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한 풍경도 작품의 소재가 된다. 작품 '구렁이'의 배경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라본 눈 덮인 산의 모습이 담겼다. 흰 눈과 검게 드러난 산의 모습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인상 깊어 그림에 활용했다.

◆밑그림 없이…물감이 만든 무늬에서 그림 찾아

여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완성된다. 먼저 아크릴물감과 물로 캔버스에 바탕을 만들고, 이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의 세부적인 모습을 그려 넣는다.

처음에는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 캔버스 위에 바른다. 물의 양과 물감의 농도에 따라 흘러내리거나 번지는 모습이 달라진다. 붓에 남아 있는 물감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 다른 색을 묻혀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도록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조절하지 않는다. 물감이 흘러내리는 방향이나 색이 섞이는 모습을 그대로 살려 예상하지 못한 무늬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여 작가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자국과 우연히 생긴 자국이 함께 쌓인다"며 "물감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바탕 작업이 끝나면 캔버스를 오랫동안 바라본다. 처음에는 얼룩이나 선처럼 보이던 부분에서 특정한 모습이 떠오르면 오일파스텔로 그 윤곽을 따라 그리거나 서로 연결한다.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무늬 속에서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여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보다 작업을 마친 뒤에야 제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색과 형태의 균형이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만큼 그림이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거친 부분과 정교한 부분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그림 전체가 단조로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억, 그림으로…과거와 현재가 만난 '문턱'

여 작가의 작품에는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생각이 함께 담겨 있다. 어린 시절부터 기록해온 일기와 그림을 새로운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써왔다. 글뿐 아니라 그날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낙서와 그림으로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시간이 지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여러 그림을 모아놓은 책처럼 느껴졌고, 이후 별도의 드로잉북을 마련해 그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드로잉북에는 일상에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쌓여 있다. 비슷한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여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기 전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며 작업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는 "드로잉 일기를 다시 보면 제가 어떤 이미지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림을 많이 그리기 위한 연습보다는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작은 크기의 그림들을 모은 '표피시리즈'도 이러한 작업 방식과 연결된다. 나무 패널에 아크릴물감과 오일파스텔로 그림을 그린 뒤 투명한 합성수지인 레진으로 표면을 마감한 작품들이다.

과거의 작업을 현재의 작품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문턱'이다. 여 작가가 특히 애정을 갖는 이 작품은 프랑스 유학 시절 천 위에 손으로 직접 물감을 칠하고 문지르거나 긁어내며 만든 그림에서 출발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기존 그림 위에 오일파스텔로 새로운 모습을 덧그렸다. 프랑스에서 남겼던 자국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새로운 선과 형태를 더하기도 했다. 과거에 만든 그림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현재의 작업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한 화면 안에서 과거의 흔적과 현재가 겹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다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다"며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 더욱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림에 정답은 없다"… 자유로운 해석 기대

여 작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갤러리 광명에서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를 열었다. 그동안 혼자 작업해온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람객에게 선보인 첫 번째 개인전이었다.

전시 제목에는 완성된 그림보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물감 자국이 점차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전시에서는 작품 옆에 제목이나 설명을 적은 캡션을 붙이지 않았다. 관람객이 작가의 설명에 영향을 받기보다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즐기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그림의 표현 방식을 넓혀갈 계획이다. 레진 등 여러 재료를 섞어 사용하면서 그림의 표면과 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에서 발견한 작은 장면들을 꾸준히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다.

여 작가는 "꼭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재미있고 좋아서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 시선으로 오래 바라보고 기록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츠베레프 vs 알카라스, 테니스 왕중왕전 ATP 파이널스 결승 격돌 /사진 뉴시스

▲추성훈 '은퇴전'서 추사랑 오열…"미안 이번엔 용돈 없다"

▲트럼프 대통령, '약물 홈런왕' 본즈 명예의 전당 입회 지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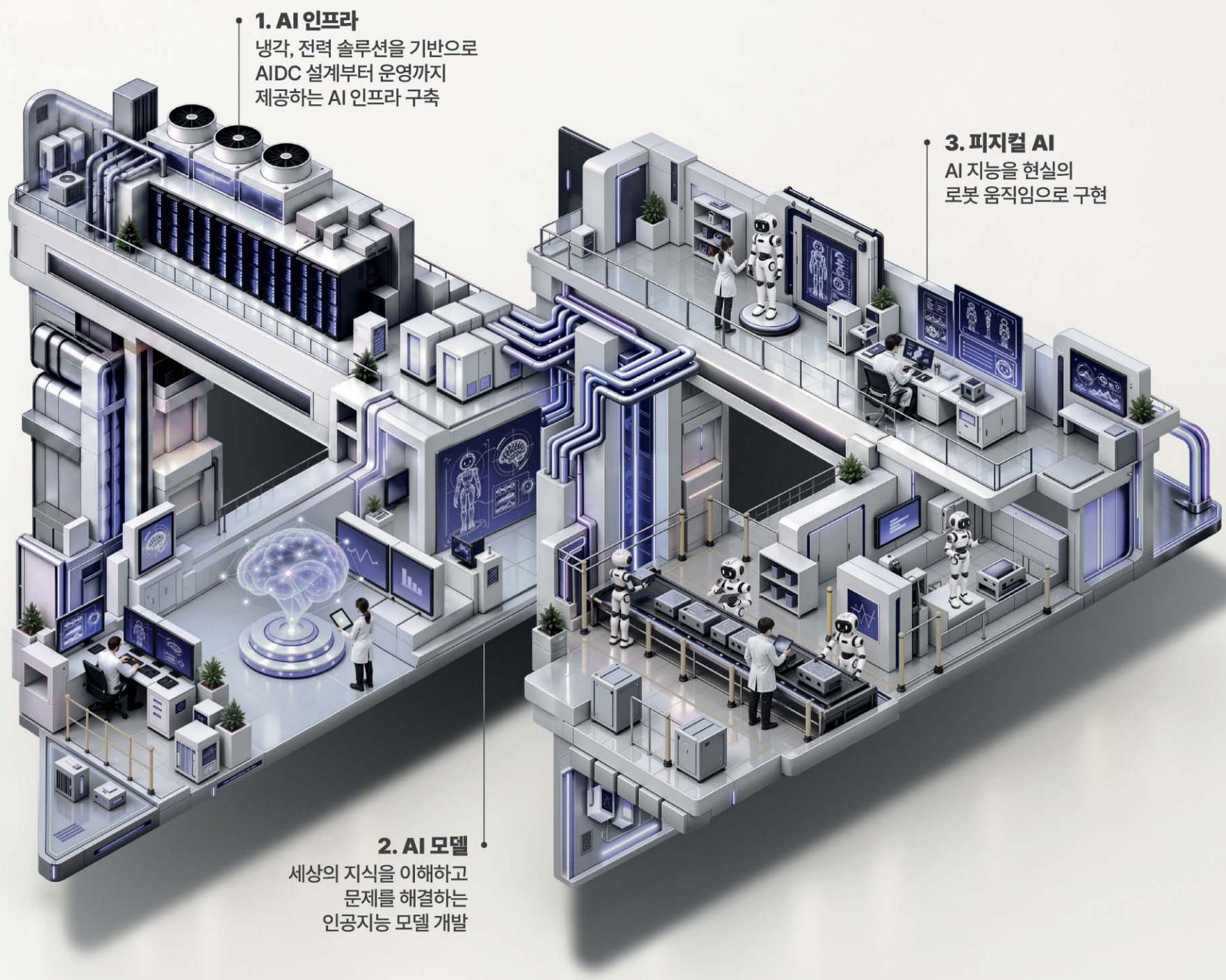
▲'레미제라블' 실존 모델 서사…뮤지컬 '비도크' 내달 개막

▲청년 음악가 11인이 빚는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소프라노 황수미 감독

▲'음주운전' 고경표, '핑계고' 시상식 후보…적절성 논란

AI 혁신 기술을 모아
미래를 앞당깁니다

AI 인프라부터 AI 모델, 피지컬 AI까지
LG는 다양한 AI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산업현장과 일상의 혁신에 속도를 더합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LG